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페미니즘 실천 공간으로서의 농촌

충남 홍성의 비혼여성 귀농사례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양희주

2022년 8월



페미니즘 실천 공간으로서의 농촌

충남 홍성의 비혼여성 귀농사례를 중심으로

양 희 주

지도교수 백 영 경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양희주의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서 영 표 (인)

위 원 전 원 근 (인)

위 원 백 영 경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6월

Practicing Feminisms in the Rural

A Case Study of Non-married Newcomer Peasants
in Hongseong, the Province of Chungnam

by

Heeju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Major: Sociology

Supervisor: Prof. Young-Gyung Paik

Examining Board: Prof. Young-Pyo Seo
Prof. Wonkeun Chun
Prof. Young-Gyung Paik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June, 2022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비혼여성들의 귀농사례를 통해 농사 짓는 삶,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모색하여 ‘좋은 삶’의 모델을 확장하는 데 있다.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성장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끊임없는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성장에 대한 압박은 또한 자연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에코페미니즘과 비혼여성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주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기존의 귀농 여성을 비롯한 농촌 여성에 대한 연구는 가족 내의 여성의 역할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연에 대한 지배와 여성 억압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에코페미니즘의 ‘자급적 관점’을 통해 농촌 공간과 농사를 조명하며, 귀농 비혼여성을 ‘자급적 관점’의 수행 주체로 바라본다.

본 논문은 유기농업과 더불어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충남 홍성 장곡면·홍동면을 연구지로 설정하여, 비혼 귀농여성의 삶을 질적 연구를 통해 세밀하게 살펴본다. 충남 홍성으로 귀농한 비혼여성들이 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정착하기까지 일련의 삶을 분석하여 크게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따른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귀농을 선택한 비혼여성들이 농촌에서 농사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정상가족’을 꾸린 형태를 기본값으로 두지 않는 삶의 기획을 적극적인 대안적 실천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여성들의 노동이 비가시화된 농촌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비혼여성들은 공동체에서 배제되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기농업과 소농을 지향하며 일상에서부터 노동까지를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어나가고 있었다. 셋째, 농촌에서 비혼여성들의 페미니즘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귀농 비혼여성들은 농촌 가부장 문화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 대응하고 있었으며, 마을 내 여성 공동체를 통해 농사짓는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귀농 비혼여성들의 삶과 농촌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공동체를 들여다봄으로써 ‘좋은 삶’의 모델을 농촌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2. 연구 현장 선정 배경과 소개	4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8
4.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	14
II. 농촌과 페미니즘: 선행 연구 고찰	15
1. 에코페미니즘 연구	15
2. 비혼여성 공동체에 관한 연구	19
3.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서 농촌 관련 연구	20
4. 한국의 농촌 여성과 귀농 여성에 관한 연구	22
III. 비혼여성들의 삶의 기획과 귀농의 의미	26
1. 정상가족을 벗어난 ‘가치 중심적인 삶’의 실천	27
2. 흥성으로의 이주: 유기농업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대	32
3. 사회 운동으로서의 농사	39
IV. 농촌 공간에서 비혼여성들의 경험	46
1. 비혼여성들의 농사짓는 삶	46
1) 흙에서 땀 흘리는 노동	47
2) 대안적 삶의 실천: 신자유주의적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탈주	51
3) 농사짓는 삶의 유지를 가로막는 현실	55
2. 농촌에서 배제되는 비혼여성	58
1) 여성 노동의 비가시화	60

2) 성원권의 문제	63
3) “안전한 울타리” 가 아닌 공동체	65
V. 귀농 비혼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	70
1. 농촌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는 비혼여성들의 존재	70
2.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공동체	75
1) 흥성여성농업인센터	75
2) 행복한 성 이야기 모임	77
3) 농촌청년여성캠프	79
4) 란앤정 농장의 비빌 언덕	82
3. 농촌에서 페미니즘 실천 방식의 다양성	85
VI. 결론	89
참고문헌	91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이제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사회가 끝없는 발전을 추구해온 결과이지만,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장’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부재한 채 많은 사회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성장’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를 조장한다. 또한 ‘성장의 명목하에 자연을 파괴하여 얻은 이익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돌아가지 못한 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으며, 높아져 가는 실업률 속에서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불안을 내재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적 위기의 상황 한편에서, 2015년 이후 한국의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며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온라인상에서의 ‘#나는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에 따른 강남역 10번 출구에서의 포스트잇 추모,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운동 등을 지나왔다. 이렇듯 젠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페미니즘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페미니즘의 대중화가 곧 성평등 사회에 한 발 다가섰다는 의미는 아니다. 페미니즘 리부트에 따른 백래시 현상이 끊이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총여학생회와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었고, 페미니스트들은 색출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손희정(2017)에 따르면 페미니즘 리부트는 1987년의 제도적 민주화와 시장적

자유화에 기반하여 나타날 수 있었으며, 그렇기에 “페미니즘 리부트는 신자유주의라는 낡아가고 있는 시대의 증거이기도 하면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 시대에 파열을 내는 가능성” 이기도 하다(손희정, 2017:49). 즉,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서 ‘개인’이 되었고, 이는 젠더에 따른 불공평함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즘과 맞아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의 만남을 극단으로 끌어간 것이 한국의 래디컬 페미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래디컬 페미니즘은 생물학적 여성들의 권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트랜스젠더, 성소수자, 난민 등 ‘여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상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 래디컬 페미니즘의 흐름을 지켜보며, 자본주의 구조 등 다른 착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페미니즘의 위험성을 더욱 알아차리게 되었다. 억압과 착취는 한 가지 구조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여러 구조가 중첩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제주의 여성단체에서 6년째 상근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 여성 운동을 해 나가며 페미니즘의 대중화, 래디컬 페미니즘 등 페미니즘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고민의 결과, 파편화된 채로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부추기는 각자도생의 삶을 돌파하기 위하여 연대와 상상이 필요하며, 연구자는 이러한 고민을 안고서 에코페미니즘을 접하게 되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라는 윤리적 논의와 더불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라는 질문으로 옮겨 가야 하며, 삶의 질과 행복, 즐거움의 미학을 살려내는 공동체를 상상하는 담론의 지형을 확장해야 한다(김현미·권수현, 2010). 거대한 구조의 무게에 눌려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기보다는 다양한 ‘좋은 삶’의 모델들이 모인다면 억압적인 구조에 아주 자그마한 균열이라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좋은 삶’의 모델들을 상상하기 쉽지만, 이미 한국에서도 농촌에서 페미니즘을 실천하고 대안적 삶을

고민하는 여성들의 활동이 있어 왔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문화기획달¹⁾이 그 예이다. 문화기획달에서는 2018년 11월, <농촌 게릴라 걸스 공동체 전격 해부전> 전시의 홍보 포스터 슬로건으로 ‘컵 하나도 제대로 안 씻으면서 공동체는 무슨’, ‘김치 썰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고’를 활용했고, 이 슬로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연구자 또한 포스터 슬로건을 통해 문화기획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농촌에서 페미니즘-하기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났다.

마리아 미스·베로니카 벤홀트-툼젠(2013)은 현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관계는 비상호적이고 일방적이며, 도시는 농촌에 물질적으로 의존하고 착취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고,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 역시 도시를 주된 공간으로 상정한다. 본 연구는 소비주의를 지양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농촌을 조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농촌 공간에서만 ‘좋은 삶’의 모델을 실천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 또한 가부장제, 자본주의 구조와 아주 무관한 삶의 형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주로 도시에서 삶을 살아 왔기에 농촌 공간에 관한 연구를 한다고 하자 주변 동료들은 농촌을 대상화하고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통해 농촌을 유토피아적 대안이 아니라 동시간대를 살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장소이자 구체적인 대안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연구자는 현재 도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농촌에서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오히려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낮추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삶, 대안적 삶을 추구하며 농촌으로 이주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유기농업과 공동체에 관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1) 문화기획달은 2014년에 1인 기획사로 시작하였고, 이후 2인의 동료가 추가되어 생활밀착형 B급 교양문예지 <지글스> 발행, 페미니즘 캠페인과 성교육, 문화예술 교육 기획, 출판기획, 타로카드 상담, 교육 등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스쿨미투와 관련하여 당사자와 지역 여성단체와의 연대를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도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올해의 양성평등 문화상과 2020년 전북여성인권운동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문화기획달은 비영리단체 활동은 중단한 상태이며, 남원 시내에서 책방 ‘살롱드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 충남 홍성 등의 지역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 내에서도,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꾸리지 않고 이주한 비혼여성들에게 주된 관심을 두고자 한다. 농촌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비혼여성들도 존재하고 이들이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귀농 비혼여성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크지 않다. 농촌 공간에서 ‘정상가족’을 꾸리지 않고 귀농한 여성들의 삶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페미니즘 실천 공간을 확장하여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혼여성들이 귀농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귀농 이후 농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또한 이들이 농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나름의 공동체성을 구축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각자도생의 삶이 아니라 서로 연대하며 구조와 제도를 바꿔나가기 위한 삶을 함께 그려내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연구 현장 선정 배경과 소개

대안적인 농촌 공동체를 지향하고 실험해나가는 충남 홍성군 홍동면·장곡면이 비혼여성들에게도 충분히 대안적인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대안적 삶의 시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지역을 연구 현장으로 선택하였다.

충남 홍성군은 3개 읍과 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홍동면과 장곡면의 경우 1976년 국내 최초로 지역에 정착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지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기농업 자원을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목적으로 해석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이다(김태완, 2020). 홍동면은 1,721세대(여성 1,698명, 남성 1,720명), 장곡면은 1,560세대(여성 1,467명, 남성 1,346명)가 거주하고 있다.

〈표1〉 충남 홍성 인구현황²⁾

(단위: 명, 세대)

읍면	세대	인구		
		계	남	여
홍성읍	17,910	37,436	18,533	18,903
광천읍	4,346	8,245	4,085	4,160
홍북읍	11,424	29,127	14,621	14,506
금마면	1,897	3,498	1,794	1,704
홍동면	1,721	3,418	1,720	1,698
장곡면	1,560	2,813	1,346	1,467
은하면	1,208	2,216	1,126	1,090
결성면	1,167	2,060	1,008	1,052
서부면	1,686	3,185	1,560	1,625
갈산면	1,991	3,544	1,791	1,753
구항면	1,908	3,483	1,771	1,712
계	46,818	99,025	49,355	49,670

※ 2022년 4월 말 기준

특히 홍동면의 경우 ‘새로운 공동체’³⁾를 모색하는 친환경농업마을로 유명하다. 대다수의 귀농·귀촌인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⁴⁾, 홍성여성농업인센터, 마을활력소⁵⁾, 꿈이자라는뜰⁶⁾ 등 다른 읍·면과 비교하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홍동면으로 이주하는 추세다.⁷⁾ 장곡면은 홍동면과 비교했을 때 귀농·귀촌인 수가 많지 않지만, 장곡면 또한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⁸⁾,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 2) 홍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hongseong.go.kr/prog/popule/kor/sub04_0105/list.do
- 3)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나가는 것 등 기존의 농촌 공동체와는 다른 흐름이 있음을 구분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체’라고 칭하였다.
- 4)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는 하나님과 이웃, 지역과 세계, 자연과 모든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사는 평민을 기른다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1958년에 이찬갑, 주옥로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친환경 농업과 공동체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장이다. 풀무학교를 중심으로 생활협동조합, 밝맑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 5)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공익적인 주민활동을 지원하며 자치·자급·자율적인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한 중간지원조직이다.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마실이 학교> 운영, 지역소식을 알리는 <마실통신> 발행 등의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출처: 마을활력소 홈페이지 http://hongseongcb.net/2015/sub_1_2.html)
- 6)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농사 일을 통해 건강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농촌형 배움터이자 일터이다. 공교육 특수교사와 마을 주민교사가 협력하여, 유기농업에 생태교육과 직업교육을 엮은 ‘전인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출처: 꿈이자라는뜰 홈페이지 <https://www.greencarefarm.org/198?category=323616>)
- 7) 연구 참여자들, 그리고 홍동면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주민은 주로 홍동면에 거주하며 장곡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는 많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8) 장곡면 도산2리를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 권역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오누이 커뮤니티센터와 예절교육관(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과 화단 가꾸기, 마을 돌봄 모임, 돌봄 농업 세미나 등의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 (출처: 행복농장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happyhada.com/오누이마을-이야기/>)

9), 마을연구소 일소공도¹⁰⁾ 등 새로운 공동체성을 모색하는 단체들이 있다. 아래 <그림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홍동면과 장곡면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림1> 충남 홍성 행정구역 지도¹¹⁾



충남 홍성군 홍동면은 앞서 언급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 지역, 공동체와 관련한 연구들이 있다. 권승문(2011)은 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 사례를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은 풀무학교에서 시작된 농촌학교와 지역의 협력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뤄왔고 풀무학교를 졸업한 지역 일꾼들이 풀무신협, 풀무생협 등을 조직하며 지역의 발

9) 2011년 시설하우스 200평에 3명으로 시작한 젊은협업농장은 토지와 자본의 공공성, 농업의 마을성, 활동의 지역성 그리고 개인적 발전을 목표로 두고 있다. 기존 가족 단위 중심의 농업이 아니라 농업생산 과정 자체를 공동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협업농장의 목표는 협업농장이 거점이 되고, 협업농장을 거쳐간 농민들이 소규모로 분화되어 주변 지역에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젊은협업농장은 농업으로 진로를 모색하거나 농업을 경험하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교육활동을 한다. (출처: 2013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농활 자료집, 젊은협업농장 홈페이지 <https://collabo-farm.com/about-young-collabo-farm/>)

10) 마을학회 일소공도는 충남 홍성군의 농촌 마을에서 농민, 주민, 마을활동가, 공무원, 연구자 등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농촌 지역과 마을이 주도하여 일과 공부, 삶과 얹이 하나 되는 21세기 농(農)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2017년 6월에 창립했다. 반연간지 『마을』과 월간 웹진 《일소공도》 등의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 (출처: 마을학회 일소공도 카페 <https://cafe.naver.com/oolocalsociety?fbclid=IwAR2f5Lg5cPoN2BIUZt8pbJ8p06hqBeT0x2EA7kaAj1Ffn7Agw6TRt3mMnEY>)

11) 홍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hongseong.go.kr/kor/sub04_0104.do

전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 있다. 최승호(2009)도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방안을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풀무마을의 공동체 형성은 풀무 학교가 기반이 되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주민참여와 협력, 동원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분석한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은 홍동면과 비교하여 연구물이 많지는 않다. 김정섭(2018)은 장곡면 도산리에 있는 홍동저수지가 한국 유기농업의 기원을 이루는 홍동면 일대 논농업의 관개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홍동면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던 농민들 중 일부가 상류 지역인 장곡면에서도 유기농업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주하여 농지를 확보하고 유기농업을 확산시켰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영배(2021)는 홍동면의 풀무학교를 통해 정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이에 대한 고민으로 전공부(대학 과정)를 만들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와중에 장곡면의 젊은협업농장을 통해 젊은 농사꾼을 길러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따라서 홍동면에서 장곡면으로 공동체문화 실천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는 이전(移轉)의 성격과 대체 또는 변환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편, 연구자는 대학 시절 충남 홍성으로 2년 동안 농촌 활동을 다녀온 것이 인연이 되어 충남 홍성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농부와의 관계가 쌓였다. 농활을 통해 홍동면의 풀무농업기술학교, 생활협동조합, 밝맑도서관과 장곡면의 젊은협업농장 등 새로운 공동체성을 실험하고 있는 단체들을 찾아가 보고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2012년, 2013년 농촌 활동 이후에도 몇 차례 충남 홍성에 방문하기도 했다. 충남 홍성에서 농촌 활동을 했던 것이 농촌으로 이주한다는 것의 의미와 더불어 유기농업과 공동체 등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본 연구를 진행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업과 대안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여러 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홍동면과 장곡면에 거주하는 비혼여성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정보를 서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충남 홍성군 홍동면·장곡면에서 귀농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네 개의 단체/모임인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홍성여성농업인센터에서 파생된 행복한 성 이야기 모임(이하 행성), 농촌청년여성캠프, 란앤정 농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자 한다. 네 개의 단체/모임에 연구 참여자들이 속해 있기도 하고, 단체/모임 자체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히 서술하고, 더욱 자세한 설명은 홍성에서 활동하는 여성 공동체를 다룬 5장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홍성여성농업인센터는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 속에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여성농업인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스스로가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2001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농촌 어린이에게 따뜻하고 안정적인 보육 및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양한 여성농업인 교육과 문화, 건강 강좌를 통해 그동안 사회 전반에서 낙후되고 소외되었던 농촌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고 자기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¹²⁾

홍성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다양한 여성 모임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모임 중 하나인 행성은 현재 홍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아·청소년 성교육, 청소년·성소수자 인권, 페미니즘 등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고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홍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농촌청년여성캠프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진행한 청년여성농민 간담회에서 청년여성농민이 겪는 문제,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들의 고충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간담회 이후 농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모아져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2)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카페 <https://cafe.daum.net/yeonongcenter/Dctp/1>

충남 홍성에서 총 4회차로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는 ‘농촌청년여성캠프’ 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란앤정 농장은 홍성으로 귀농한 여성 2인이 운영하는 협업 농장이다. ‘란앤정’은 여성 2인의 이름 중 한 자씩 따서 지은 이름이다. 란앤정 농장은 함께 농사짓고 농촌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성귀농캠프 ‘비밀언덕’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성귀농캠프는 한 달에 한 번 2박 3일 동안 농작업과 농촌 체험을 통해 귀농 선배들과 후배들이 서로에게 비밀 언덕이 되어 주는 프로그램이다. 농작업, 귀농선배와의 만남, 농촌체험 활동 등을 한다. 비밀언덕 프로그램은 2021년까지 운영되었다.

본 연구의 주 대상은 홍동면, 장곡면에 거주하는 귀농 비혼여성으로 한다.¹³⁾ 여전히 한국은 가족중심주의가 작동하고 있고, 농촌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따라서 가족 단위가 아닌 비혼인 상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농촌 적응이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비혼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이주의 계기, 결혼에 대한 생각, 농사 짓는 삶, 홍성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점, 홍성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현재 속해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에 대한 생각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내외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면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인터뷰 대상자 자택, 장곡면 카페, 홍성읍 카페 등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2021년 2월, 앞서 언급한 농부와 홍성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기혼 여성 2인을 만나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¹⁴⁾ 또한 지인 농부의 소개로 란앤정 농장의 비밀언덕 프로그램 참여자 3인과 가볍게 식사를 하며 사전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초반에는 지인들의 소개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를 만나기 시작했고, 산림살

13)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귀농을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나, 연구 참여자 전원이 전업농은 아니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전원이 농사짓는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다.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업농인 경우에도 다른 일을 병행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 상의 이유로 농사를 접고 간간이 단체 일을 하는 연구 참여자, 농사와 단체 일을 겸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농사만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귀농과 귀촌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귀농 여성’으로 분류하였다.

14) 사전에 만난 기혼 여성 2인 중 1인은 농촌청년여성캠프 기획에 참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림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개최한 <산림살림 작은집 워크숍>에 참여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또 다른 연구 참여자를 소개해주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충남 홍성에 총 여섯 차례 방문하였으며, 방문할 때마다 짧게는 3박, 길게는 5박을 머물다 왔다(2021년 2월, 4월, 7월, 8월, 10월, 12월). 머무르는 동안 연구 참여자 인터뷰 외에도 홍성 마을협동조합, 세어하우스, 자연농학교에서 가꾸는 밭 등의 장소에도 방문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연구 참여자의 밭일을 돕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2>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사례	연령대 ¹⁵⁾	이주 여부	비혼 여부 ¹⁶⁾	이주 년도	비고 ¹⁷⁾
주 연구 참여자	A	30대 초반	리턴	비혼	2016년	농촌청년여성 캠프 기획자
	B	30대 후반	이주	비혼	2018년	행성 모임원
	C	30대 후반	이주	적극적 비혼	2018년	비빌언덕 멘토
	D	40대 초반	이주	비혼	2019년	행성 모임원
	E	40대 초반	이주	적극적 비혼	2013년	-
	F	30대 후반	이주	비혼	2020년	비빌언덕 참여자
	G	30대 초반	이주	적극적 비혼	2011년	행성 모임원
	H	40대 초반	이주	적극적 비혼	2015년	-
보조 연구 참여자	I	20대	이주	적극적 비혼	2014년	행성 모임원
	J	50대	이주	기혼	2006년	홍성여성농업 인센터장
	K	50대	이주	기혼	2004년	란안정 농장 운영자

15) 인터뷰를 진행했던 2021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특정되지 않기 위하여, 그럼에도 주 연구 참여자의 연령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초·중·후반으로 기재하였다.

16) 연구 참여자는 모두 비혼 상태에 있으나,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비혼을 정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참여자를 '적극적 비혼'으로, 그렇지 않은 참여자를 '비혼'으로 표기하였다. 인터뷰 중 가족, 결혼에 대한 생각에 답변한 내용을 통해 연구자가 판단하였다.

A는 충남 홍성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자랐고, 풀무학교 전공부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서울에서 농민운동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2016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도 유기농업을 하고 있어 농사일을 조금씩 돕다가 현재는 스스로의 힘으로 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 플랫폼에서 농산물 판매까지 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뿐만 아니라 농업 진로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논밭의 일부를 공유하며 농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초보농민 농사자립 지원, 지역의 환경단체와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농촌청년여성캠프를 동료들과 함께 기획하였고, 이 캠프에서 만난 청년 여성 농업인들과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B는 연구자의 지인 농부의 연결로 1회 참관한 산림살림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개최한 <산림살림 작은집 워크숍>에서 만났다. 이 워크숍에서 연구 참여자 모집 홍보를 했고, 유일하게 응답이 온 워크숍 참여자였다. B는 2018년에 농사짓는 삶을 꿈꾸며 홍성으로 이주했다. 홍성농업기술센터와 홍성여성농업인센터에서 귀농·귀촌 여성을 대상으로 세어하우스를 운영했고, 이 세어하우스에 사는 것이 확정된 후 홍성으로 이주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끝나고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2019년 타 지역으로 잠시 이주한 후, 2020년 다시 홍성으로 돌아왔다. B는 대학 졸업 후 디자인 전문회사에 다녔고, 건강상의 문제로 스타트업, 대학원 조교 등 여러 일을 거쳐왔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워킹홀리데이로 우프¹⁸⁾의 경험이 있고, 이때의 경험으로 농사, 농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또한 B는 일본의 야마기시 공동체에도 다녀온 경험이 있고, 야마기시 공동체에서의 생활을 인상 깊게 간직하고 있다. 홍성에서 유기농업 관련 단체 일을 한 경험이 있으며 농사는 텃밭 정도로 하고 있고, 행성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다.

C는 홍성으로 이주하기 전 환경단체, 사회복지 단체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18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했고, 현재 혼자의 힘으로 유기농업을 하고 있

17)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룬 네 가지의 여성 공동체와의 관계를 기재하였다.

18) 우프는 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의 약자로 1971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유기농가 및 친환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곳에서 하루에 반나절 일손을 돕고 숙식을 제공받는 것으로 전세계 150여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다. 신뢰와 지속 가능한 글로벌 커뮤니티 구축을 목표로, "비 화폐 교환"에 따른 문화 및 교육 경험을 촉진하며 유기농가와 자원봉사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운동이다. (출처: 우프코리아 홈페이지)

다. 장곡면·홍동면의 몇 안 되는 여성 전업농이다. 서울, 경기도 등의 지역을 거쳐 홍성으로 이주했다. 기존 마을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주해 온 여성 혼자 농사체를 꾸리고 지속하는 경우가 흔치 않아 C는 비빌언덕 프로그램에서 선배 귀농인으로 비중있게 결합하고 있었다. C를 통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F를 만났고, F의 소개로 란앤정 농장의 농장주이자 비빌언덕 프로그램의 기획자인 K도 만나서 인터뷰 할 수 있었다. K의 소개로 비혼여성은 아니지만 비빌언덕 프로그램 참여자 L도 만났다.

D는 함께 행성 모임을 하고 있는 B의 소개로 만났다. D도 B와 같이 세어하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홍성으로 이주했다. D는 이주하기 전 금융권과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다. 이주하기 전 농사를 지은 경험은 없고, 도시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농사와 가까운 삶을 위해 홍성으로 이주했다. D는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짓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홍성에서 지역 공동체 관련 직장생활을 하다가 기존 홍성 공동체에 회의감을 느껴 현재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E는 C의 소개로 만났으며, E는 2013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했다. 잠깐 일을 하러 홍성으로 왔다가 이주까지 하게 되었다. E는 이주 이전에 여성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페미니스트로서 농촌에서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다. 현재는 개인적인 이유로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을일을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중 홍성에 가장 먼저 이주하였으며, 현재 홍성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살고 있다.

F는 비빌언덕 참여자로, 2020년에 이주했다. 주 연구 참여자 중 가장 최근에 홍성으로 이주했다. 20대 중반부터 외국에서 약 10년 동안 기획 마케팅 업무 관련으로 직장생활을 했으며,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귀농을 결심하였다. 처음엔 동네 aT센터¹⁹⁾에서 교육을 듣고, 충남 홍성 농촌진흥청,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 관련 교육을 받았다. 현재 작은 규모로 직접 농사를 짓고, 홍성으로 이주해 온 5개 농가와 함께 구역을 나누어 밭을 일구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직접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G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 J의 소개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G는 고등학교 졸업 후 풀무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홍성으로 이주했다. 고등학교는 대안학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해 있다.

교를 다녔는데, 농사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배움은 있었으나 농사를 더욱 배우고 싶었던 G는 졸업 이후 농사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풀무학교 전공부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 인터뷰 당시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행성, 비폭력대화 공부모임 등 다양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다.

H는 <산림살림 작은집 워크숍> 운영진 중 한 사람으로, 이때 알게 된 인연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H는 2015년에 농사 짓는 삶을 꿈꾸며 홍성으로 왔다. 홍성으로 이주하기 전, 사회적기업에서 웹 디자인 일을 했었다. 회사 일과 우프를 병행한 경험이 있고,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호주에서 약 3개월 간 우프를 다녀왔다. 이러한 경험들은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이주한 이후 홍성의 환경단체에서 오랜 기간 비상근 활동가로 일했으며, G와 함께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육농장 운영 멤버로도 활동하였다. 인터뷰 당시에는 번아웃이 와서 모든 활동을 쉬고 있었다. 마을 활동에 대한 고민과 농사에 대한 고민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4개 단체/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을 보조 연구 참여자로 하였다. 사전 조사를 통하여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던 농촌청년여성캠프,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행복한성이야기모임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비혼여성들이 홍성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한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의 센터장, 란앤정 농장 운영자와의 인터뷰는 추가로 진행하였다. 이들의 인터뷰는 주로 5장에서 다룬 예정이다.

I는 풀무학교 전공부 출신으로, G의 소개로 만났다. 홍성으로의 이주 목적이 귀농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조 연구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줄곧 도시에서의 삶을 살다가 풀무학교로 진학을 했고, 졸업을 하고 난 뒤에도 홍성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G와 함께 여성주의 소모임, 비폭력대화 공부모임을 하고 있다. I는 홍성에서 비폭력대화 강사로의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J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이다. 연구자가 홍성여성농업인센터로 이메일, 전화 연락을 통하여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J는 가족 단위로 귀농을 했고, 15년째 홍성에 거주 중이다. J는 약 7년 전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고, 학부모로서 그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자 행성을 처음 만든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하다.

K는 귀농 17년 차이며, 귀농 전 한국여성민우회 생협에서 매장 활동가로 일한 경험이 있다. 생협 활동을 하며 생산자들과의 관계가 쌓였고, 생산자들의 고충을 알게 되어 농촌에서 무엇이든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귀농을 하게 되었다.

인터뷰 외의 보조 자료들은 언론 기사, 관련 단체 홈페이지 서치와 더불어 홍성 여성농업인센터에서 발간한 <2016 그녀들의 흥동이야기>, <2017·2018 그녀들의 흥동이야기>, <2019 그녀들의 흥동이야기>와 행성에서 자체 제작한 <2018 행복한 성 이야기 모임 우리 행성에 초대할게> 책자 등을 살펴보았다.

4.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질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 세 가지 내용을 연구의 목적이자 질문으로 두고,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홍성으로의 귀농을 선택한 비혼여성들의 이주 동기는 무엇이며 이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개인적인 삶의 맥락과 기획이 어떻게 농촌 공간과 만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둘째, 귀농 비혼여성들의 농사 짓는 삶을 들여다봄으로써 도시와는 다른 농촌에서의 성차별적 구조를 드러낸다. 또한 대안적 공동체라 불리는 홍성에서 귀농 비혼여성들이 겪는 차별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공동체적인 삶을 찾아서 홍성으로 귀농한 비혼여성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이 실험하고 있는 공동체성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힌다. 비혼여성들의 공동체/공간은 기존의 공동체와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며 관계 맺는지 본다. 이를 통하여 비혼여성을 비롯한 여성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페미니즘 실천 장소로서의 농촌 공간을 조명하고자 한다.

Ⅱ. 농촌과 페미니즘: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살펴보아야 할 선행 연구를 고찰한다. 먼저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국내 에코페미니즘 관련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비혼여성들의 공동체에 관심을 둔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다양한 공동체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며 농촌을 대안적 삶의 실현 공간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농촌 여성과 귀농 여성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여성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와의 대화 속에서 연구 질문에 따른 답을 만들어 나갔다.

1. 에코페미니즘 연구

에코페미니즘은 기후위기, 가부장제, 양극화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운동이자 이론이다. 에코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1974년 프랑수아즈 도본의 저서 『페미니즘 또는 과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프랑수아즈 도본은 이 책을 통해 여성 억압과 자연 억압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로즈메리 퍼트넘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2019:364). 에코페미니즘은 1970년대에 “인간 중심적인 근대 과학기술에 대한 반성, 자본의 이윤 증식을 위한 성장 중심의 개발에 대한 회의, 산업주의가 초래한 재앙에 대한 생태주의의 비판, 경제적 제국주의에 대한 제3세계의 대항,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등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이상화, 2016:218). 또한 1980년대를 거쳐 학문적 분과를 가로질러 논의가 심화되고 확장되었다.

에코페미니즘은 어떤 문제의식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자연 에코페미니즘, 영적 에코페미니즘, 변형적 에코페미니즘, 전 지구적 에코페미니즘, 채식주의

에코페미니즘, 환경 에코페미니즘 등 그 안에서도 다양한 갈래로 나뉜다. 문순홍(1995)은 이러한 갈래들을 여성해방과 자연해방을 풀기 위한 ‘3중과정론’ 개념을 통해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근본생태론 간의 결합,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사회생태론 간의 결합, 사회주의적 페미니즘과 생태사회주의 간 결합으로 유형화한다.

문순홍(1995)의 3중과정론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근본생태론의 결합은 에코페미니즘이 등장한 초기적 유형인 자연과 여성은 동일하며 돌봄, 출산 등 여성의 특성을 인정하는 흐름(본질주의)에 반대하며 등장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구성적 에코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남성들에 의해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성/남성 이원론을 탈피하기 위해 이들은 문화적 변형을 피하였으나 역사사회적 기반을 간과하여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에서의 여성 억압 및 해방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급진적 여성해방론과 사회생태론의 결합, 즉 사회적 에코페미니즘은 인간과 자연, 여성과 남성 간의 다른 특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사회적 에코페미니즘은 인간사회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것들 사이에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여성억압과 자연억압이 생겨났다고 본다. 따라서 더불어 사는 윤리와 사회구성적 원리를 강조하여 에코페미니즘이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와 에코페미니즘 간의 접합 유형인, 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은 기존 맑스주의 사상의 사적 유물론이 남성적 물질세계만을 이론틀로 상정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영역은 자본의 이해관계이자 남성의 이해관계이고, 인간중심적 이해관계라고 본다. 그리고 가사노동, 돌봄 등과 같이 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온 재생산 활동의 가치를 부각시킴으로써 인간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비인간 및 생태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돌봄 관계로 정립한다.

앞서 서술한 문순홍의 3중과정론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에코페미니즘은 ‘여성성’을 둘러싼 본질주의와 구성주의적 입장의 대립이 있어왔다. 이러한 논쟁은 자연과 문화,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등 이분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추상적인 범주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이상화, 2011). 그렇기에 자연해방과 여성해방 모두에 관심을 둔 에코페미니즘은 쉽지 않지만 이분법을 넘어, 여성들의 삶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석해나가는 동시에 생명, 돌봄 등을 ‘여성성’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나가야 할 가치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²⁰⁾

본 연구는 에코페미니즘 이론 정립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2020)의 논의를 적극 차용한다.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이 16세기 이래 환원주의적 근대과학이 형성한 남성과 자연 간의 착취적인 지배관계가 근대 산업사회까지 포함하는 대부분의 가부장제 사회에 팽배한 남성과 여성 간의 착취적·억압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포착한다.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2020)는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은 자본주의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가부장제 구조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가부장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본주의 가부장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모델이 돌봄 등 여성의 노동이 평가절하 되고 있다는 것, 여성의 노동을 생계 소득에서 제외하여 자연자원으로부터의 소외를 심화한다는 것, 여성을 비롯한 모든 것이 상품화된다는 것 등을 유효하게 설명할 수 있다(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2020:14~18). 또한 개발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자연을 정복하거나 초월하는 ‘좋은 삶’의 모델에서 벗어나, 자연의 제약 안에서 자유, 행복과 같은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급적 관점(subsistence perspectiv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급적 관점’은 “비공식부문을 이루는 가정주부, 자급농민, 소생산자들의 감추어진 비임금 혹은 저임금 노동을 상품과 화폐의 무제한적 성장”을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토대로 분석하기 위하여 개발된 개념이다(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2020:479). ‘자급적 관점’은 상품과 이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20)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 위기 이후 여성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돌봄이 인간을 비롯한 비인간 대상에 대한 돌봄으로, 돌봄 의미의 확장이 요청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돌봄 영역은 주로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고, 돌봄 노동은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수익 창출이 삶의 핵심 원리로 보편화되며 사회는 돌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는 코로나 위기와 맞물려 증폭되었다(더 케어 컬렉티브, 2021). 따라서 돌봄은 “사회적 역량이자, 복지와 번영하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사회적 활동”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는 곧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더 케어 컬렉티브, 2021:17).

것이 아닌 “생명의 창조”를 지향하며, 자연과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의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마리아미스·반다나 시바, 2020:510~513).

아래에서는 국내 에코페미니즘 관련 논의를 다룬다. 한국에서 에코페미니즘 연구는 주로 문학, 미디어 등을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해석하거나, 종교적, 철학적 차원의 연구가 많다. 또한 에코페미니즘의 실천적 영역에 관한 연구는 생협운동과 연결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생협운동이 주로 주부인 여성들에 의하여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성역할에 따른 수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서 해석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김명숙, 2013; 백은미, 2012; 허미영, 2008; 이현희, 2004). 그러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소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 또한 내재하고 있다.²¹⁾ 에코페미니즘적 가치를 지향하는 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기획한 두 가지의 단행본(2016, 2019)은 주로 월경, 낙태 등 몸의 문제와 쓰레기 문제, 기후위기를 다루고 있으며, 농사에 대한 관심은 주로 도시를 중심에 두어 농촌과 농업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담겨 있지는 않았다.²²⁾

소비에 대한 사유 없이 생산에 대한 사유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간 에코페미니즘 논의에서 조명되지 않았고 농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관심이 요청된다. 에코페미니즘은 현실에 개입하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논의이며 본 연구도 현실을 살아내고 바뀌어나가는 귀농 비혼여성들의 삶을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분석틀로 보고자 시도한다. 현재 농촌에서 소농, 유기농업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비혼여성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많아진다면 도시에서 ‘자급적 관점’을 실천하는 상상력이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21) 이와 관련하여, 신유정(2022)은 남원지역 A 생협 사례를 통해 농업·농촌과 생산자의 비가시화 현상을 드러낸다.

22) 여성환경연대에서 발행한 출판물(여성환경연대, 2019)에는 ‘동네에서 에코페미니스트로 잘 살기’라는 제목의 좌담회 내용이 실려 있는데, 좌담회에 참여한 활동가 중 한 명은 에코페미니즘이 다뤄야 할 의제로 농업정책을 꼽는다. 국내 에코페미니즘에서 농업정책이 다뤄져야 하는 이유로 “여전히 소비자 관점”이 많고, “농업정책에 대해 국민도 사회운동 하는 사람도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며, “도시에도 농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엔 다들 관심”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한다(여성환경연대, 2019:124).

2. 비혼여성 공동체에 관한 연구

본 절에서는 비혼여성들이 구축한 공동체에 관심을 둔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공동체는 단순히 과거의 가치를 ‘회복’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새로운 공동체적 상상이 필요하다. 과거의 공동체는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이성애중심주의와 성별분업체제하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하면서 과거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 배제된 주체들은 없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단순한 회귀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정상가족을 이루지 않은 비혼여성들의 공동체 연구를 통하여 이들은 기존 공동체와는 어떻게 다른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비혼여성과 공동체를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지역공동체는 ‘회복’이 아닌 ‘질문하고 상상하는’ 페미니스트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전희경(2013;2014)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기반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음을 밝힌다. 전희경(2014)은 ‘마을’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공/사분리, 성별분업,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한 젠더 질서를 당연시하는 경향을 지적하며 비혼, 퀴어, 페미니스트의 위치에서 지역여성운동을 벌여가고 있는 <살림의료사협>,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성애-가족 중심의 지역공동체에 어떻게 균열을 내고 있는지 정리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역공동체에 단순히 적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성 자체를 재정의해가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비혼여성들의 다양한 주거 실천을 새로운 공동체성의 실험의 일환으로 분석한 지은숙(2022)의 연구는 가족을 기본 단위로 한 주거 정책과 주거 형태를 비판한다. 또한 지은숙은 세대에 따른 주거 실천 전략을 분석하였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비혼을 정체성으로 삼은 2030세대의 경우 내집마련과 공동 거주의 활성화 경향이 있으며,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는 1인 가구 네트워크를 통한 거주 연대와 생활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비혼여성들의 공동체만을 사례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김혜경(2017)은 네 개

의 청년주거 공동체의 구성원 5인을 인터뷰하여 가족 이후 대안적 친밀성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성애적 핵가족이 독점한 친밀성과 자본주의적 시장이 독점한 생계양식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가족 같지만 친구 같고, 친구 같으면서도 동지 같은’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이들의 주거실험은 우정과 돌봄의 결사체라는, 가족을 넘는 새로운 친밀성의 가능성을 시사” (김혜경: 2017: 193)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가족의 먹거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상상되어지는 비혼여성들이 도심 속 공동체 농사에 참여율이 높은 것을 주목하여, 도시농업의 여성주의적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는 김효정(2013)의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20-30대 비혼여성들에게 도시농업은 도시라는 공간에서의 여가이자 놀이로 작동하였으며 이들의 활동이 여성주의를 표방하건 표방하지 않았든 간에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왔던 여성의 재생산 노동과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는 점, 화폐와 소비중심의 시장 경제체제 내에서 관계성에 기반한 대안 경제활동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듯 비혼 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체에 초점을 둔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여전히 농촌이 부재하다. 페미니즘과 농촌을 연결할 수 있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대안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와 농촌이라는 대안적 공간이 만나는 것이 비혼여성들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본 연구는 비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농촌 공간에서 어떤 삶의 기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문제에 놓여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3.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농촌 관련 연구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과 농촌 공동체를 연결하여 본 연구들이 있다. 이에 농촌을 전근대적인 곳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닌, 대

안적 공동체를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선미(2021)는 현대 농촌 공동체 활성화의 동력으로서 주도적 활동가의 유형과 활동 내용을 분석하면서, 현대 농촌 공동체는 공동체의 운영 방식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전통 마을공동체에서는 대개 토박이가 마을지도자로 선출되나 현대 농촌 공동체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 활동가가 되고 있으며, 이들은 공동체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경은(2019)은 충남 ‘A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청년 이주민의 대안적 활동과 농촌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청년의 농촌 이주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지지가 가부장적으로 성별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성별과 연령, 혼인상태 등으로 인해 농촌에서 주변화된 청년을 새로운 농촌성 형성의 주체로 주목한다. 청년 이주민들은 활동을 통해 농촌을 도시에서 얻기 어려운 친밀성과 자유로움, 새로운 일과 경험에 대한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이자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의 공간으로 경험하고자 한다. 농촌이라는 주변적 공간이 청년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자원을 통해 기존에는 그 지역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질의 농촌을 구성해내고 있음을 밝힌다.

남원 산내면을 중심으로 하는 지리산 산내 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해 산내 공동체가 형성된 계기와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밀착형 마을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분석한 최규혜(2021)의 연구도 있다. 남원 산내면은 충남 홍성과 같이 귀농·귀촌인의 유입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각종 소모임과 문화행사, 마을카페와 공방, 협동조합 설립 등의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이다. 산내 지역은 귀농귀촌 1세대가 실상사 인드라마생명공동체 중심으로 다양한 마을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풀뿌리시민단체 지리산이음의 주민자치활동은 귀농귀촌 2세대의 인적 토대로 작용하였으며 지역의 성과들을 전국 시민사회로 공유, 확산하고 있다. 따라서 산내 공동체는 사상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1세대에서 문화와 교육, 경제, 마을 복지 등의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2세대로 빠르게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한편, 충남 홍성을 중심으로 한 관련 연구들이 있다. 권승문(2011)은 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 사례를 충남 홍성군 홍동면 일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은 풀무학교에서 시작된 농촌학교와 지역의 협

력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뤄왔고 풀무학교를 졸업한 지역 일꾼들이 풀무신희, 풀무생협 등을 조직하며 지역의 발전 주체로서 활동하는 것이 특징인데, 외부적으로는 농촌 사회 고령화 문제, 유기농산물의 시장 변동과 판로의 문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업의 중복과 소통의 부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센터 설립과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등의 결론을 내는데, 기존 공동체의 공동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보이지 않았다. 최승호(2009)도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방안을 흥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풀무마을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적 인프라가 형성되었고 자치적인 사회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분석하지만 공동체의 단위를 ‘정상가족’으로 두고 있는 것 등을 보아 기존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영배(2021)는 공동체 현상과 실천의 양상이 자본주의 체제와 인간중심적·과파적 문명에 저항하고 대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흥동면과 장곡면의 경우 지역 현장의 활동가들이 자체적으로 역사적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해나가는 것의 의의를 살핀다. 박은복(2019)은 흥동마을 공동체 유지의 가치와 조건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연계활동, 그리고 갖춰진 기반과 관계망을 통해 나타났음을 드러낸다. 이는 지속해서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고 흥동마을공동체가 유지되는 선순환의 고리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농촌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의의가 있으나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공동체의 일원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대안적 공동체는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들 또한 안전하게 자리 잡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한국의 농촌 여성과 귀농 여성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 귀농 여성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연구물이 많지 않고,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 주로 가족과 농촌 공동체 내에서의 돌봄 역할에 관심을 둔 연구가 대다수였다.

귀농 여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에 앞서, 농촌 여성의 노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이옥희(2002), 박주희(2009)의 연구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두 연구는 농촌에서 여성의 노동을 더욱 가시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옥희(2002)는 농촌 여성의 재생산 노동과 농업 및 부업 등 생산노동을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살핀다. 농촌여성들은 생산노동과 재생산노동의 경계를 명확히 두지 않고 모두 수행하고 있었으며 가족 안에서 남성은 소유권을 갖고 있고 여성은 단지 관리운영 및 소비권 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여성들의 재생산 노동, 생산 노동의 따른 대가는 지불되지 않고 있었다.

박주희(2009)는 전라남도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성은 돌봄노동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성들의 노동은 저평가되고 있었다. 정부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이러한 성별분업을 통해 사업을 구상하는 주체와 실행하는 주체가 분리되었고, 여성들은 ‘나눔과 봉사 정신’으로 무임금 노동을 수행했다. 따라서 박주희의 연구는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그간 농촌은 주로 가족 단위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남성이 주된 연구 대상일 수밖에 없었는데, 농촌 여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에 의의를 가지는 연구도 있다. 조옥라(1996)는 여성 농민들의 가사노동, 농사일 등 일상을 들여다보는데, 가족 안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개별 주체로 보고자 하였다. 여성 농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시도들은 곧 한국 농촌에서 여성의 지위가 변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여전히 여성을 가족이라는 틀에 한정 짓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현장인 충남 홍성의 마을 공동체를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들여다본 최근의 연구도 있다. 진명숙(2020)은 충남 홍동지역을 사례로 여성 중심의 친밀과 돌봄 기반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나타나는 여성 주체의 행위자성에 주목하면서 그 활동에 내포된 여성적 저항의 의미를 모색한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이 주

로 기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동체 내 여성 돌봄의 긍정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기존 공동체 내에서의 성별분업 구조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남성들도 여성들의 일을 ‘돕도록’ 하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귀농·귀촌 여성을 다룬 연구들 또한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성지혜(2013)는 가족단위의 귀농에서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를 ‘아내연고형’, ‘부부연고형’, ‘남편연고형’, ‘무연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여성들은 주로 ‘남편연고형’으로, 원치 않는 귀농을 하고 있는 현실을 짚고 있는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에서의 노동은 농사에만 한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명숙·박성정(2012)은 귀농·귀촌은 ‘가구’ 단위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처하는 상황과 어려움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각자 주체적인 위치로 놓고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성을 가족 안에서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주로 다루고 있는 한계가 있다. 진양명숙(2014)은 귀농·귀촌한 여성들이 농촌으로의 이주와 정착 과정을 젠더적 시각으로 분석하는데, 21명의 조사 대상자 중 1인 가구는 한 건밖에 없는 등 이 연구도 주로 가족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한편, 귀농한 비혼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다룬 정다래(2009)와 최은주(2012)의 연구가 있다. 정다래(2009)는 비혼 귀농 여성 6인의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해 대안적 삶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며 대안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의 의미를 고찰한다. 귀농 후 도시의 노동과는 차이가 있는 농사를 지으며 구조적 노동으로부터의 탈출, 어느 정도 자신이 통제하는 노동 경험을 통한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룬다. 또한 비혼 귀농 여성으로서 농촌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한 적응의 과정을 살핀다.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 비혼 귀농 여성들이 현재보다 많지 않았기에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연구 참여자 6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2인을 제외하고 모두 달랐다. 따라서 귀농 비혼 여성의 삶 자체는 주목할 수 있지만 이를 농촌과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최은주(2012)는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기충족의 가능성을 찾기 위하

여 농촌으로 이주한 비혼여성들에 관해 연구했다. 미디어에서는 1990년대 신세대 여성들을 가정주부 역할이 아닌 ‘커리어우먼’으로 공고하게 정체화하였고, 비혼여성들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위하여 익숙하지 않은 농촌 공간으로 이주하였다고 본다. 귀농 비혼여성들에게 농촌은 “이질감 속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나 함께 공존하는 법을 터득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된다(최은주, 2012:56).

가족을 기본 단위로 둔 귀농 여성에 관한 연구는 비가시화된 농촌 여성을 조명한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가족을 넘어 여성을 주체로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혼여성의 귀농 사례를 다룬 본 연구는 다양한 농촌 여성들의 삶을 드러내는 데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비혼여성들의 삶의 기획과 귀농의 의미

최근 한국의 ‘래디컬 페미니스트’로부터 출발하여 20대, 30대 여성들에게는 4B(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의 움직임이 있다. 강미선·김성희·정인혜(2020)는 4B에 동의하며 실천하고 있는 20대 여성 12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은 ‘가부장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기초적이고 개인적이며 근원적인 운동’ 이자 ‘나를 사랑해서 한 선택’ 으로 4B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3월에 <청년의 생애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미래 전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청년(19~34세, 6,570명) 포함, 15~39세 청(소)년 10,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인상적이다.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결혼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으며(여성 57.4%, 남성 51.9%) 여성 중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여성 23.9%, 남성 11.0%). 결혼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가족에 대한 생계 부담(남성 23.0%, 여성 6.8%) 및 결혼 비용 부담(남성 20.5%, 여성 8.5%)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여성 26.3%, 남성 21.2%), 전통적 가족 문화나 가족 관계의 부담(여성 24.6%, 남성 9.0%)이 높았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4B의 흐름은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운동을 경험한 한국의 여성들이 가부장제에 적극적인 반기를 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족은 여전히 사적인 공간으로 분류되어 주된 돌봄의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성별고정관념을 기반에 둔 가족 중심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를 알아차린 여성들은 더 이상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비혼여성과 관련된 논의는 비단 최근의 이슈만은 아니다. 지은숙(2022)은 민주화 이후 1990년대의 비혼여성들을 1세대로, 2010년 중반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비혼 여성들을 2세대로 분류하고 있다. 비혼여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등장한 시점은 1990년대이다. 언론에서는 비혼여성을 주로 새롭게 등장한 소비 집

단으로 비추다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서 새로운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2003년에는 저출산담론과 맞물려 저출산의 원인이자 가족 해체의 원인으로, 2003년 이후에는 경제적 및 소비적 주체로서의 비혼여성, 가족 형태의 하나로서의 비혼여성 등 다양한 담론이 등장한다(김소라, 2007).

그러나 농촌 공간에서 비혼여성은 이제까지 크게 조명되지 못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는 여성농업인 1,583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미혼’인 사례는 단 6명이었다(미혼 6명, 기혼 1,179명, 사별/이혼 399명).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촌에서 비혼여성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연구물은 많지 않다.

3장에서는 농사짓는 삶을 꿈꾸며 농촌으로 이주한 비혼여성들을 페미니즘-하기와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본다. 그간 페미니즘 실천의 공간을 도시 공간으로 한정했던 흐름에서 더 나아가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서 농촌에서의 삶을 택한 여성들을 살펴본다. 농촌으로 이주하여 삶을 살아가는 8명의 연구 참여자가 비혼 상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게 된 계기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개인적인 삶의 기획이 농촌 공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1. 정상가족을 벗어난 “가치 중심적인 삶”의 실천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비혼 상태에 있으나, 비혼에 대한 생각이 모두 같지는 않았다. 적극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도 있고, 지금은 딱히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비혼 상태를 유지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고,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A, B, D, F는 비혼으로, C, E, G, H는 적극적 비혼으로 분류하였다.

저는 혼자 살 생각도 없고, 그래서 같이 계속 살 생각도 없고, 사실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A, 30대 초반>

예전에 친구들이 결혼하려고 하고 이럴 때 그냥 저는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 내가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었는데도 그렇게 [결혼] 선택을 우겨서라도 하지 않았던 게, 뭐랄까 약간 변화를 그만큼 안 좋아하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 그래서 지금도 저는 괜찮은 사람 있으면 함께 할 생각이 있고요. (...) 그런데 어떤 결혼 상대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래요.

<B, 30대 후반>

정해진 건 없는 거 같아요. 정해진 건 없는데. [연구자: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결혼을 하고 싶고 같이 했을 때 서로 행복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안 하는 거고.

<D, 40대 초반>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고요. 물론 (...)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환경들이 있었겠죠. 근데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일이 너무 좋았고요. 그냥 일이 너무 좋았어요. 약간 바빴어요. 바빴고. 선택적이긴 했으나 조금 또 후회도 남기도 하고. (...)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경험이 없었으면 그냥 당연한 건 아니지만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는 안 만나지더라고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지라는 생각에서가 아니고, 그러면 내 시간을 얼마나 할애해야 되는지. 내가 그 분한테 기대하는 것들이 좀 생길테니까. 그래서 안 할 거야는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좀 회피하긴 하죠. [연구자: 굳이 소개를 받으면서까지는 만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에 있어서는 굳이 꼭 해야 한다, 그 제도를 내 앞에 갖다 놔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F, 30대 후반>

위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비혼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더라도, 이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B와 F의 경우 결혼을 할 상황에 놓여 있던 경험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결혼을 할 수는 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한 후 주변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압박을 준다는 답변을 하였다.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은 성별고정 관념에 따른 성 역할 구분이 명확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에서 굳이 나서서 결혼 제도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혼으로 분류한 연구 참여자 A, B가 결혼, 가족과 관련된 생각을 이야기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 농촌에 오니까 자기가 혼자 살 집을 짓는 여성들이 있더라고 요. 뭐 이후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혼자 살 집을 짓는 여성들. 우리가 보통 시골에서 가정을 이루면 집을 짓거나 좀 돈을 벌면 집을 짓거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어떤 어떤 보편적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집을 구상하고 짓고 이러는데. 여성이 혼자 살 집을 짓는 다는 것 자체가 저희 시골에 와서 굉장히 좀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A, 30대 초반>

A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현재 비혼인 것은 과도기적이라는 답변을 한 직후에 농촌에서 혼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여성들에 대한 언급을 했다. 정상 가족을 이루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성 혼자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멋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특히 정상가족을 중심에 두고 있고, 이주의 경우도 가족을 중심인 경우가 많아 혼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지점’이라고 이야기한다. 혼자 살 집을 지은 여성이 나중의 결혼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당장 혼자만의 집을 짓고 삶을 꾸려 간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제 나이가 차고 여기 농촌에서 지내면서 부부, 정상 가족에 대한 무한한 신뢰, 안전 장치 이런 거를 보면서 도시에서보다 피부로 와닿죠. 그렇게 되면 낯선 사람들에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겠구나.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궁금증에 일일이 답하지 않아도 되

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그러면서 이제 저도 1인 가구나 싱글맘이라던가 정상 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 더 연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래서 지금의 관계는 거의 그 친구들하고 맺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인 친구들 하고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 같아요. 나도 내 쪽수를 늘리고 싶고요.

<B, 30대 후반>

한편, B는 농촌에 살면서 결혼을 하고 정상가족을 이루는 것이 도시에서보다 '보호막'이 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한다. 농촌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 등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비혼여성들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어르신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을 소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기도 하고, 억지로 이어 주려 하기도 한다. B는 한편으로는 결혼을 통한 정상가족을 꾸려야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1인 가구, 싱글맘 등 정상가족을 이루지 않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고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적극적 비혼으로 분류한 연구 참여자 C, E, G, H의 결혼·가족과 관련한 인터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는 만약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자가 손해잖아요. 계산기 때려보면 보나 마나 마이너스인 거 다 아는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다들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큰 이득은 못 봐도 큰 손해는 안 보고 살려고요.

<H, 40대 초반>

그거는[비혼을 결심한 것은] 어릴 때부터 쪽 갖고 있었던 감정 상태였네요. (...) 나 혼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뭐. 강박적으로 나는 이것도 해놔야 되고 저것도 해놔야 되고. 막 이러지는 않고 그냥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그냥 그 부당함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았던 거죠. 부당함에 대해서. 그게 에로스적으로 극복이 안 됐던 거겠죠. 나를 너무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부당하고 불편함을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정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없었어요.

[비혼을 결심한 것은] 어릴때 부터 쪽 갖고 있었던 감정 상태였어요. (...) 나 혼자 살아야 되니까 강박적으로 준비를 하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왔어요. 결혼, 그 부당함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았던 거죠. 부당함... 그게 에로스 적으로 극복이 안 됐던 거죠.(웃음) 나를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아니라, 뭔가 부당하고 불편한 걸 느끼는데 그럼에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게 정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없었어요.

<E, 40대 초반>

결혼. 일단 결혼 제도 속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순응하거나 이려고 싶지도 않고. 만약 제가 들어간다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체제에 들어가서 뭔가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싫을 것 같은데.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결혼 문화를, 나만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상대이거나 그 상대의 가족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별로 가망이 없어 보이는. (웃음) 굳이 그렇게까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G, 30대 초반>

호적상 가족은 저 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요. (...) 어쨌든 혼자 내려오는 여성들이 이렇게 동질감을 갖고 가는 게, 약간 가치 중심으로 자기 삶을 좀 바꾸고 싶다 라고 하는 동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서로 좀 공유가 되는 거죠. 서로 성향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도. (...) [호적상 가족은] 상상해본 적이 없고요. 구속, 구속이 될 것 같아요. 저는.

<C, 30대 후반>

적극적 비혼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들은 감각적으로 결혼 제도 자체가 여성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H는 ‘큰 손해’ 를 보지 않기 위해, E는 ‘부당하고 불편함’ 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G는 결혼 제도에 불필요한 ‘에너지’ 를 쏟지 않기 위해, C는 ‘구속’ 되지 않기 위해 비혼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는 것에 있어 여성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부장제 구조하에서 결혼 제도는 여전히 여성에게 억압적인 제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C는 주변에 혼자 이주한 여성들은 ‘가치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꾸고 싶다’ 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정상가족을 반드시 꾸릴 필요는 없다는 삶의 실천으로 연결된다. 결혼 제도를 통하여 가족을 꾸리는 것을 정상으로 규정하고, 이외의 삶을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배제하는 것은 이성애 중심주의와 가족중심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회에서 ‘정상적인 삶’ 을 규정한 것이 부당함 것임을 알고,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이 비혼 상태인 것을 스스로 페미니즘과 바로 연결 짓지 않더라도 페미니즘적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구 참여자 전원이 비혼인 상태에서 농촌 마을에서 살아간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갖고 있던 직업을 그만두고, 삶의 공간을 바꾸고, 그 공간에서 맺고 있던 관계들과 멀어지는 것을 감수하며 농촌으로 이주를 하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귀농은 적극적인 삶의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사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 때 반드시 정상가족을 꾸린 형태를 상상하지 않는 것 또한 대안적 삶을 위한 적극적 실천의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 흥성으로의 이주: 유기농업과 마을 공동체에 대한 기대

연구 참여자들은 흥성에 이주하기 전,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으며, 도시 공간을 삶터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도시와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기에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일단 9시 출근 6시 퇴근이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 가끔씩 문화 생활이나 일 때문에 가고 이러면, 전철에서 도시랑 나랑은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딱 전철 탔을 때 그 인상이에요. 사람들 다 책을 보거나 다 피곤

해서 자고 있거나 핸드폰 보거나 다 땅만 쳐다보고 가고. 그 공간, 그 분위기, 다 서로 각자의 섬 같은 그런 느낌. 다 외롭고. 외로운 거 같아요. 그게 너무 숨 막힐 것 같은거예요.

<C, 30대 후반>

예민해서. 도시 생활 자체가 저한테는 스트레스였어요.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그러는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어디 조금만 움직여도 쉬고 싶고 (...) 여기는[홍성은] 조용하고, 길을 지나쳐도 어깨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저에게는 좋고. 그 다음에 흙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신경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E, 40대 초반>

C와 E는 농촌 이주의 계기에 대하여 지하철에서의 풍경을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하철은 사람들로 부터 느껴지는 단절적인 분위기와 시끄러운 소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도시, 특히 서울에서의 주요 교통수단은 지하철인데,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쳐야 하고 삭막한 분위기를 느낀 것을 농촌 공간과 대비하여 떠올리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앞서 E가 ‘흙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신경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농촌에서 흙을 만지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고자 했다.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어요. 완전 어렸을 때는 시골 산골짜기 출신이어서. 그때는 어쨌든 [부모님이] 관행농을 하셨고. 그리고 어렵게 남의 밭이나 논을 빌려서 하는 소작농이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기억은 좋지 않아요. 노동력으로 아이들까지 동원되는 집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막내여서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농민들은 되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농사를 지을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자연에서 자란 그 풍경과 감성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향수 같은 게 있었던 거 같아요.

<C, 30대 후반>

할머니 댁 가면은 시골에 있을 때 아침에 조용하고 산이랑 들panse 둘러싸여

있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서 자주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D, 40대 초반>

그냥 어렸을 때 어렵풋한 기억 때문에. 이렇게 번잡한 도시로 다시 오는 게 너무나 좀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래 그러면 아버지랑 시골에 한 번씩 놀러 가자. 그러다가 왔는데 너무 좋았고. ‘아빠 난 그럼 여기서 생활을 조금 더 해볼게’ 뭐 이런 식이 됐죠. (...)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한국에 들어간다 하면 흠을 만지고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만져봤더니 너무 좋아서, 농업을 선택했다 보기에 아직 너무 새내기지만, 선택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F, 30대 후반>

연구 참여자 C, D, F의 경우 어린 시절 농촌에서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C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을 당시에는 피로했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그때 자연에서 자랐던 경험이 자신을 농촌으로 이주하게끔 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D와 F도 농촌으로 이주한 이유에 대해 어렸을 적의 기억을 이야기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도시의 빠른 속도들, 어디를 가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단절된 관계들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자연,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택한 것이다.

앞서 연구 참여자들이 농촌으로 이주한 동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연구 참여자들이 다른 농촌 지역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충남 홍동면과 장곡면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유기농 농사 배우려고 여기저기 막 검색해서 메일을 짝 뿌리고 이제 거기에서 와봐라 이렇게 연락 오는 곳에 가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여기 마을활력소에다 보냈더니 ‘이런 내용이면 협업 농장으로 가야지’ 하고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첫날은 협업 농장으로 갔는데 오전에 상추를 따고 나니까 티오가 없대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자급자족의 자연농이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여기 자연농 하는 데 있으니까 거기

연결해 줄게' 라고 거기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H, 40대 초반>

H는 우프의 경험이 있는 등 농사에 관심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기농 농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관련 단체들에 메일을 보냈다. 그 중에서 처음 연락이 닿은 곳이 흥동면에 있는 마을활력소였다. 마을활력소에서는 장곡면의 젊은협업농장을 연결해주었고, 그 때 당시에는 자리가 나지 않아 장곡면의 자연농학교와 연결이 되었다. 한국에서 유기농 농사를 배우고 호주로 다시 우프를 떠날 계획도 있었으나, 그 이후 계속 흥성에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오자마자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지는 않았고. 그 텃밭과 농사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쨌든 직장 생활에 대해서는 조직 생활을 다시는 당분간은 하고 싶지 않아서. 생계가 이제 농사 기반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유기농을 해야 되는데 유기농업에 대해서 어쨌든 좀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동안 들었던 게 협동조합이나 뭐 마을 공동체 관련된 것이 흥동이나 흥성이 잘 돼 있다더라라는 걸 꺾등으로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풍월로 왔어요.

<C, 30대 후반>

C는 전업농을 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관행농이 아닌 유기농업을 하고자 했고, 그렇기에 유기농업 관련 인프라가 잘 구성된 충남 흥성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C는 흥성이 공동체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정보도 알고 있었다.

귀농에 계속 뜻이 있었는데 여성 싱글이 귀농한다는 거는 힘든 일인 것 같았죠. [귀농에] 관심이 있어서 귀농학교도 다녔었고. 그리고 귀농 탐방 같은 것도 해봤는데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여장부 같으신 분들, 정말 카리스마 있으신 분들이 홀로 산속에 혼자 집 짓고 밭을 일구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잘 지내고 이러는데, 저는 성격도 그렇게 못하고 혼자서 살기는 힘들겠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적으로 □□단체랑 연결이 됐어요. (...) 그래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단체라는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테두리가 있고. 이장님과 사모님이 전폭적으로 그 새로운 사람들, 귀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오픈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텃세라던지, 아니면 내가 혼자 마을을 상대로 부딪히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가운데 약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그리고 마을이 있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는 협조적이신 이장님과 사모님이 계시고. (...)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E, 40대 초반>

E는 귀농을 하기 위하여 귀농 학교도 다니고, 귀농 탐방을 다녔으나 비혼인 상태에서 귀농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고민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차에 장곡면의 □□단체와 일적으로 연결이 되어 이주를 하게 되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큰 고민이 없이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는 자신의 성향과 맞물려 이주를 했고, □□단체 테두리 안에서는 혼자라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삶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회사도 그만두고 몸도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쉬고 있을 때 그럼 지금이 시골에 살아볼 수 있는 때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 싼 거처를 찾아서 옮겨야 될 때여서. 그러면 이 기회에 시골 가 볼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흥성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지역 부동산 가서 집도 알아보고 하는데 조금 낯설고 너무 할 수 있을까 싶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 봤거든요. 혹시 여자 혼자서 귀촌한 사례가 있다. 검색했는데 흥성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내려와 봤어요. 지금은 없는데, 여기에 혼자 내려온 여자 분들이 같이 사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덜 무서워서, 흥성은 그렇게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D, 40대 초반>

D는 여성 혼자 귀촌한 사례가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원했기 때문에 흥성을 택하게 된 경우다. 농촌에서의 삶을 막연하게 고민하고 있다가 회사를 그만 두고 나서 거처를 고민하던 중 ‘지금 시골에 살아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여성 혼자서 귀촌한 사례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다가 흥성을 알게 되었다. 검색할 당시에 흥성여성농업인센터와 흥성농업기술센터가 비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세어하우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디선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좀 막연했다가, 마르쉐@²³⁾에 갔더니, 농촌 여성 9명에게 집 세 채를 빌려주고 살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농센터랑 흥성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해서 그런 게 있다,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제가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이었어요. 집이 있으니까 이사를 오게 됐죠.

<B, 30대 후반>

B의 경우도 D와 같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흥성을 선택하게 되었다. 20대 초반 워킹홀리데이를 통한 우프의 경험으로 인해 농촌, 농사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러다가 마르쉐@을 알게 되어 자주 방문을 하다가 농촌 일손 돕기의 일환으로 흥성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도시를 떠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마르쉐@에서 여성을 위한 셰어하우스가 마련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주하게 되었다.

보통 제주도 그렇지만 여기도 농가들이 잘 살지 못하잖아요. 잘 사는 농가들은 굉장히 소수고. 저희 아버지도 어쨌든 소수에 잘 못 사는, 생산비 보장 못 받는 농가였는데. 그래서 우리 아빠 생산비 보장 받게 좀 판매하고 싶다 해서 조금 시작했다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 농업을 하려면 기반이 필요하고 초기 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몇 달 머물다 보니까 조금 더, 조금 더 하다 보니, 이를테면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같은 거 받게 되면 3년을 머물러야 되고 더 6년을 머물러야 되고 뭐 이런 무거운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 하다 보니까 완전 발을 담그게 된 케이스예요.

<A, 30대 초반>

고향은 경기도인데, 부모님 고향인지라.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저희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온 거죠. 다른 분들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아버지 고향에 내려오게 된거죠. [연구자: 경기도에 살긴 했지만 흥성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아기 때. 이제 친척들이 살아 계실 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고향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는 해요. 근데 8촌에, 아버지

23) '농부, 요리사, 수공예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화하는 농부시장'을 표방한다. 혜화, 성수, 서교, 국립국장 등의 장소에서 시장을 열고 있다.

당속에 뭐 이런 분들이라서 저랑은 조금 또 거리감이 있어요.

<F, 30대 후반>

A는 충남 홍성이 고향이며, 아버지가 유기농업을 하는 농부이다. A는 풀무학교 졸업생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 일손을 돕기 위해 농업에 뛰어들었고, 현재는 직접 농사를 짓고 유통까지 하게 된 경우다. F는 홍성에서 살았던 적은 없지만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릴 적 홍성에 왔던 경험이 있다.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한 이후 농촌으로 이주를 했는데, 홍성에 귀농·귀촌인이 많다는 정보는 이주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권정생 선생님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선생님은 마을살이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나 할 거 없이 같이 어울려서 누가 장애인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이 있어서 또 되게 행복하고, 좀 그런 마을에 대한 어떤 이야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농촌 마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마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농사 짓고 그냥 소박하게. 그때 저한테 그게 심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풀무학교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녹색 평론 많이 보고 하면 뒤에 풀무 전공부 입학 그것도 나와 있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대안학교 고민하면서. 그럼 전공부가 대학 까지도 좀 알게 되는. 이런 길을 통해서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구나.

[G, 20대 후반]

G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녹색평론』과 같은 책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면서 농촌에서 농사짓는 삶에 대한 로망이 생겼고, 그 관심으로 풀무학교 전공부에 진학을 하며 홍성으로 이주했다.

연구 참여자들이 홍성으로 이주한 이유를 정리하면 C, E, H는 주변 지인의 소개 혹은 자신의 정보력으로, B와 D는 공동주거 프로그램을 통해, G는 풀무학교 진학을 위하여, A, F는 연고가 있기 때문이었다. 즉, 귀농인을 위한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고, 유기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인 것과 더불어 마을 공동체가 활발

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여성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흥성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이다.

3. 사회 운동으로서의 농사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소한 실천에서부터 제도적 변화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거니즘,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청년·청소년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단체 설립, 채식급식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여성들이 농촌 공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주를 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²⁴⁾

주목할 만한 점은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연구 참여자 중 대다수가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이주했다는 사실이다.

24) 사회운동으로서의 농사에 대한 고민은 아주 새롭게 등장했다기보다, 기존의 농민 운동에서도 있었다. 그 중에서 1989년에 창립하여 현재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의 운동을 참고를 위해 소개하고자 한다. 전여농은 2020년에 30주년을 맞이하여 30년사를 정리하였다(오미란, 2020). 오미란(2020)은 전여농 운동의 시기를 태동기, 창립기, 성장기, 도약기, 확장기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태동기(~1989년 이전)에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객체로서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농민여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아닌 '농촌여성' 혹은 '남성농민의 부인'으로서의 계몽적 성격이 강했다. 창립기(1989년~1991년)와 성장기(1992~2000년)에는 자체적으로 단체를 설립하며 '여성농민'으로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전여농의 전신이라 볼 수 있는 전국여성농민위원회보다 1년 정도 늦게 설립되며 두 단체를 하나로 통합할지 여부에 대하여 단체 내외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다. 전농 안에 여성들이 하부 위원회 차원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단체 창립 이전의, '남성농민의 부인회' 정도로 위치지워질 것임을 파악하여 독자적인 단체를 유지한다. 이 시기에는 농민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접근을 시작한 것 또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중조직 건설의 일환으로 마을 부녀회의 민주화를 시도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정상가족 범주 안에서 여성농민의 경계를 설정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도약기(2001년~2009년)는 국내 여성단체들과 국외 농민단체들과의 연대가 시작된 때이다. 단체 내부적으로도 '성평등 의식 확산운동'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박신규·정은정(2010)은 이 시기를 전여농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적 가치를 전면에 배치한 것을 두어 에코페미니즘과 연결짓는다. 전여농 30년사에서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운동을 평가하지는 않으나, 국제단체와의 연대 경험을 통해 전여농은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항하는 지향점을 운동 안에 녹여내어 에코페미니즘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확장기(2010년~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운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전여농 30주년평가전망위원회에서 정리한 전여농 30년의 평가와 전망을 보면 "여성농민 조직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성평등 운동을 강화해야" 하며, "생산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여성농민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과 함께 법과 제도 개선 투쟁에서 나아가 여성의 문제에 함께 해야"함을 명기하고 있다.

〈표3〉 연구 참여자의 사회 운동 경험

구분	해당 연구 참여자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 사회운동의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A, B, C, D, E, G, H
해당사항이 없는 연구 참여자	F

〈표3〉과 같이 연구 참여자 F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대안학교 등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의 사회 운동 경험이 귀농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저는 농민 운동 단체에서 일했는데, 글을 쓰는 일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 기성 운동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농민운동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인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근데 농민 운동은 생각보다 여러 갈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갈래의 농민 운동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농사를 짓게 됐어요. 마침 또 마음 맞는 마녀의 계절 팀도 만나고, 캠프 팀도 만나고, 같이 일하는 팀들도 만나다 보니까 논밭상점을 제대로 꾸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논밭상점에서 농사일을 하는 것 플러스해서 또 다른 저희가 그전에 생각했던 새로운 운동판. 남들은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다양한 농촌의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어떤 운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A, 30대 초반〉

A는 풀무학교 전공부 졸업 이후 서울의 농민운동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홍성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농촌청년여성캠프’를 기획했고,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은 후 캠프에서 만난 농사 짓는 청년 여성 4인이 모여 청년 여성 농업인 꾸러미 사업 ‘마녀의 계절’을 기획·운영했다. 각자가 자신의 지역에서 농사짓는 작물을 계절에 맞추어 꾸러미 형태로 판매하는 형태이다. 기성세대의 운동과는 새로운 방식의 농민운동을 고민하고 있으며, A가 운영 중인 논밭상점은 유기농

업을 통해 작물을 재배하고 ‘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과 더 가깝게 농사’ 짓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농사 짓기와 판매뿐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구와 논밭을 위해 일반 시장에서 주목 받지 못하는 농부와 작물을 조명’ 하기도 하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아이스팩 재사용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남들은 운동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이전의 농민 운동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논밭 상점을 통해 여러 실험을 하고, 자신만의 운동성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대안적인 삶에 관심이 있지만, 도시에서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 본 것 같아요. (...)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일본에서 느꼈던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차도 공용으로 쓰고. 한때는 집은 따로 살면서, 일을 하루는 꿀을 따고, 하루는 부엌일을 돕고 그런 식으로 골라서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새로웠거든요.

<B, 30대 후반>

B는 귀농하기 전 디자인 전문회사, 학교 조교, 스타트업 등의 일을 했다. 사회 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야마기시 공동체 생활을 찾아서 경험하고, 마르쉐@, 청년허브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도시에서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도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 사회운동의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로 분류하였다.

학부 때 생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대안 학교나 생태 공동체 운동에 대해서 계속 조금씩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때라서 계속 뭔가 가지고 있었던 거가 아닌가. (...) 이제 ○○에서 공동체적인 주민 조직을 하면서 관계성 회복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은혜를 받고. 주민들이 조직 활동하면서 장애인 분들하고 그런 지지고 북고 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케어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좀 그런 인간성.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배웠는데 다시 또 단절적인 공간, 단절적인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다.

<C, 30대 후반>

C는 대학생 때부터 생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환경단체에서 일했던 적이 있다. 이후에는 ○○ 지역 사회복지단체에서 오랜 기간 일을 했는데, ‘공동체적인 주민 조직’을 했고, ‘관계성 회복을 위해’ 서로 ‘은혜를 받기도 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C의 경우 어렸을 적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던 경험과 더불어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농촌에서 농사지며 사는 삶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는 거는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알고 싶었거든요. 농사 짓는 거나 텃밭이나. 그래서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싶었는데. (...) 시골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이랑 같이 사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고, 농사 배우는 것도 재미있었고. 공동체라고 해야 할까. 그런 이런저런 활동들이 있는 것도 신기했었고. 내려왔을 때.

<D, 40대 초반>

D는 처음에는 은행,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민단체에서 약 3년간 일을 했다. 은행에서 시민단체로 이직을 한 이유는 ‘의미 있는 일’, ‘사회가 나아지는 데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노인의 의료복지에 대한 연구 보고를 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다.

[연구자: 흥성 오기 전에는 그냥 회사 생활 하셨나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게 생겼어요?(웃음) NGO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NGO에서도 상근은 안 하고 반상근을 했어요. 옛날 일인 것 같은데, 도시에서는 여성주의가 저의 삶의 큰 중심이었는데요. 제가 [흥성에 온 뒤로] 살짝 귀찮아 하고 인터뷰 같은 거 잘 안하는데, 이런 거[페미니즘 관련 논문] 쓰신다고 하셔서 제가 나왔어요.

<E, 40대 초반>

E는 이주하기 전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한 적은 없고, NGO에서 반상근 형태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E는 스스로 여성주의와 거리를 두고 살게 되었다고 했지만,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가 느끼기엔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 농촌으로 이주한 뒤

에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다.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에 인터뷰에도 응해주었다고 생각하며, E도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다.

[고등학생 때] 급식실에서도 내가 키우는 거랑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맨날 그냥 돈까스, 튀김. 채식 이런 게 없고 그냥 일반 급식이었거든요. 농사랑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는 삶이 조금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다 뭔가 분리돼 있는. 그래서 얼른 졸업하고 싶은 마음으로 [고등학교] 3년을 학교를 다니고 이제 [풀무학교] 전공부에 가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 전공부에 방문 기간 있어요. 그래서 실습하고 수업 이런 거 다 경험해 보고 공동체 생활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신분일 때 갔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머물기로 했는데 너무 좋아서 2주를 더 경험하고 싶어서 더 경험했는데. 그때 너무 좋은 것만 보고 간 거예요. 진짜 모든 게 다 ‘여기 와’ 하는 것처럼. 제가 올 수밖에 없게, 좋은 것만 계속 보이고 만나지고 해서 더 좋았어요. (...) 그래서 아 나 여기로 가야겠다. 그래서 가게 됐죠.

<G, 30대 초반>

G는 풀무학교 전공부에 진학을 하며 홍성으로 이주한 경우인데, 농촌에서의 삶의 형태를 지지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대안적인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집에는 진보적 성향의 신문을 받아보았고, 녹색평론, 한살림 기관지를 볼 수 있었다. 부모님의 권유로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진학하기로 하고, 농사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풀무학교와 전북에 있는 생태학교를 고민하던 중, 본가가 전북인 G는 가까운 전북의 생태학교에 진학한다. 이 생태학교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시절 배우고 싶었던 농사보다는 다양한 예술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후, 조금 더 농사에 방점을 찍고 교육을 하는 풀무학교 전공부에 입학을 하며 홍성으로 이주했다. 풀무학교 전공부 졸업 이후에도 홍성에 머물며 삶을 꾸려가는 결심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통하여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농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 보고고요. 책으로는 혁명의 영점이라는 책이 있어요. 실비아 페데리치가 지은 건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비판한 책이었거든요. (...) 저자 강연회가 온라인으로 잡혀가지고, 그걸 듣고 책을 사 와서 봤는데 어

려웠었는데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림자 노동, 돌봄 노동이 왜 여자의 전임이 되었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임금 체제 밖으로 나와 있어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이 끝에 나왔는데 소규모 농사 공동체가 답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했죠. 그때 이제 제가 일하던 회사가 공정무역 회사였어요. 공정무역 옷을 파는 회사였고 네팔, 방글라데시 거기에 있는 여성분들이 옷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그거를 국내에 팔아서 그 이득을 들이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12년부터 14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일을 할 때에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공정 무역에 대한 비판도 있고, 단순하게는 이 옷이 팔리지 않으면 이분들한테 이득이 안 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옷을 저희가 사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라서, 좀 이게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소규모 농사 공동체다 이러면 이제 자연 재난 빼고는 그렇게 시장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생계가 결정이 지어지는 건 아닌 거니까. 그 책이 이제 그것도 있는데 공정무역에 대한 비판도 나왔어요. [회사에서] 나오면서 그것의 대안이 소규모 농사 공동체다 이렇게 나온 거죠. 회사 다니기 싫은데 이제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회사를 때려쳐야 되는 이유까지 한꺼번에 생긴 거죠.

<H, 40대 초반>

H는 고향은 경남이고, 서울에 만화를 배우러 갔다가 회사생활을 하며 약 10여년을 보낸다. 개인적인 공부와 공정무역 관련 사회적기업 근무 경험을 통하여 ‘소규모 농사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안적 삶의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여러 여건상 전업농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향후에는 전업농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있어 마을 활동을 비단 생계를 목적으로만 두고 있지 않았다.

이상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운동 경험이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귀농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 운동 경험을 통하여 자연과 연결된 삶, 건강한 공동체를 꾸린 삶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귀농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한편, 사회운동으로서의 농사가 이주의 계기 중 하나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가치 지향적으로만 이주를 결심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개인적 이유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했다.

마음을 먹었다기보다는 마침 그렇잖아요. 지방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이유가. 무언가 목적이 없으면 사실 딱히 집이 없고 그러니까 본 거주지로 내려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였고, 또 마침 집도 빠졌고.

<A, 30대 초반>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회사도 그만두고 몸도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쉬고 있을 때, 지금이 시골에 살아볼 수 있는 때지 않을까. 일도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좀 싼 거처를 찾아서 옮겨야 될 때여서.

<D, 40대 초반>

저는 생각을 할 때는 많이 하는데 안 할 때는 좀 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냐, 용감하다 뭐 이러는데 그냥 저의 기질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E, 40대 초반>

운동으로서의 목적도 있으나 A, D의 경우 같이 서울살이의 부침도 한편으로 작용했다. E는 □□단체와의 인연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선택 또한 쉽지 않은 않으며, 개인적인 성향도 함께 작용할 수밖에 없다. 농촌으로의 이주는 사회운동을 했던 경험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우연적인 계기로 이주를 결심하기도 한다.

Ⅳ. 농촌 공간에서 비혼여성들의 경험

앞서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귀농·귀촌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여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으며, 귀농 비혼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더욱 많지 않다. 4장에서는 농사짓는 삶, 대안적 공동체를 찾아 귀농한 비혼여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농촌 공간에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공동체 안에서 겪는 문제들은 무엇인지가 주로 살펴볼 내용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흠에서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삶,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과 다른 대안적 삶의 실천은 에코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자급적 관점’과 연결하여 분석할 수 있다.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2020)에 따르면, ‘자급적 관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비가시화된 노동을 가시적으로 만들어내며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파괴적 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자급적 관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은 존중, 협력, 상호성에 기반을 두며, 이는 안전한 공동체의 기반을 갖추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1. 비혼여성들의 농사짓는 삶

농사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으로 보았을 때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했다.

어떻게 들었는지 대학 얘기를 들어서가지고. 본인들은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초등학교도 전쟁 나가거나 해서 못 다니셨다는 한스러운 얘기를, 배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어디 어디 학교 나와가지고 어디 은행장 하고 있고 뭐 한다고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는데, 웬 젊은 애가 똑 같이 자기 자식처럼 배웠다는데 시골에 다시 내려와서 소위 말해서 무지렁

이들만 해야 되는 농업을 한다고 하니. 그리고 또 농업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 같은데.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C, 30대 후반>

[고향은] 지방 소도시였어요. 근데 바로 나가면 논밭이고 하긴 하는데 그냥 도시여서. 조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고, 여차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지만. 대부분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막 그때 귀농·귀촌 기사 검색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식이 귀농한다고 그러가지고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뉴스도 있었어요. (...) 있어 보니까 알겠는 게 보통 농촌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은 잘난 놈들은 다 도시로 간 거예요. 못난 놈들만 남아 있다는 생각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보통 금의환향을 원하는데 젊어서 들어오는 애들은 실패해서 들어온 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지가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젊은 놈이 뭐 해 먹을 게 없어서 농촌에 들어오냐,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다 도시에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니깐. 다들 땅이랑 집 다 있는데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는 못 가고 이런 데 모여드는 게 아닌가.

<H, 40대 초반>

우연한 계기로 C가 대학 졸업을 한 것을 알게 된 주변 어른은 농촌으로 이주해서 “무지렁이들만 하는 일”인 농사를 하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H가 언급한 것과 같이 “잘난 놈들은 다 도시로 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렇기에 H는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있기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C 또한 고향으로 귀농하는 선택지도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살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여 홍성으로 이주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농업인이 사회적 지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이동하는 결정까지 하며 농사를 선택했다. 앞서 3장에서 농촌으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면, 본 절에서는 농사에 초점을 맞추어 비혼여성들의 삶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흙에서 땀 흘리는 노동

농업은 경영주를 남성으로 상정하는 경향이 있고, 농업이 기계화됨에 따라 농사는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몸’이라고 여겨지는 남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 요즘에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성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청년들은 혼자 들어와도 마을에서 환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노동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런 건지, 큰 기계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지, 오자마자 큰 밭을 얻어서 자연드림에 납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청년들은 연고 없이 와도 바로 농사 지을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 농부들을 일단 땅 빌리기도 어렵고, 농사에서 여러 가지 진입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주거 문제와 함께 이런 고민들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2017·2018 그녀들의 흥동이야기:146>

충남 홍성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남성 청년도 포함이 된다. 위 자료의 사례에 따르면 “(남성) 청년들은 혼자 들어와도 마을에서 환영을 많이 받는” 존재이며, 그 이유로는 “큰 기계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노동력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비혼여성과 비교했을 때 남성 청년들은 “바로 농사지을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이거는 성적으로 나누는 건 좀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농업을 한다는 건 힘에 부치는 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인정하고 가느냐 아니냐, 내 능력과 체력이 어느 정도냐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두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 혼자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미혼에서.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손을 벌리면 좀 쉬운 길들이 열려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생각보다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못하는 분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안 되는 건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 진짜 큰 일이 있을 때는 ‘죄송한데 오늘 트럭 갔다가 뭘 좀 날라주세요’ 부탁드려요.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주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이지만 제가 혼자 하려면 2~3일이 걸리는 일들은 누가 보기에선 그게 일이니까 빨리 해서 하루 만에 끝내고 쳐야지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2~3일을 해요. 하지만 뭐 힘적으로 안 되거나 이런 건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체력적인 것[이 힘들어요]. 아무래도 육체 노동의 역할이 많다 보니까 기계도 계속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저처럼 미혼이거나 혼자서 농사를 짓는

게 제 주변에 C 언니밖에 없어요. (...) 기계들은 다 남자 분들이 와서 해주 시거나 도와주시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계도 다 배웠는데 막상 하기에는 어렵더라고요.

<F, 30대 후반>

F는 여성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귀농 여성 모두가 남성과 비교했을 때 힘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체력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F는 이를 인지하는 것이 여성 혼자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부탁하면 하루 만에 될 일을 2~3일이 더 걸리더라도 되도록 스스로 해나가고자 한다. F는 이를 자신의 성향으로 설명하였으나, 연구자는 연구 보조 자료와 다른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귀농 비혼여성들이 흙에서 땀 흘리는 노동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럼에도 내가 농사를 계속 짓는 건 제 스스로가 몸을 쓰는 걸 참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예요. 수확물이나 심을 때의 즐거움도 있지만, 삽질을 하거나 호미질을 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풀을 베는 단순 노동으로의 농사도 내가 참 좋아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이고. 저는 흙을 만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흙을 만지면서 식물도 보고, 동물도 보고 그 안의 생명을 보는 게 참 즐거워요. 외부에서 느껴지는 날씨들도 느끼는 게 참 좋거든요.

<2017·2018 그녀들의 흥동이야기:144>

위 자료의 인터뷰이 ●●은 학교 선배를 통해 흥동을 알게 되어 이주 후 마을 일과 농사일을 병행하며 2018년을 기준으로 8년째 살고 있는 경우다. “스스로가 몸을 쓰는 걸 참 좋아한다”는 것을 농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며, 자연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노동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직접 농사를 짓게 된 거는 컴퓨터 베이스로 작업들을 오래 해왔고, 또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 건강도 잃어보고. 그리고 예술이나 이런 거 관심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가 예술 자체인 거예요, 먹는 것까지 아우르는. 환경도 환경, 사회 다 알면 알수록 크고 중요한 거구나. 그만큼 호기심도 컸고 많이 배우고 싶기도 하고 또 하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나를 좀 더

살피는 느낌. 그리고 해 지는 거 보는 거, 해 뜨는 거 보는 거. 자연 속에서의 그런 일상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그런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몸 쓰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싶다.

<B, 30대 후반>

B는 귀농하기 전 주로 컴퓨터를 활용한 일을 했었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수록 농사의 중요성을 알게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 자연 속에서 몸을 쓰며 땀 흘리는 일이 스스로가 건강해지고 “나를 좀 더 살피는 느낌” 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인생이 그런 게,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이 체력이 확 떨어져버리니까. 내가 왜 시골에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농사는 아니지만, 농사를 짓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게으르고, 돈 벌지도 않고, 그냥 이런 데서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흔들리니까.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몸 생각만 하자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오피스 워킹을 하고 있는 거죠.

<E, 40대 초반>

E는 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마을 일을 하고 있다. 당초 농사를 짓기 위해 이주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되니 “시골에 살아야 되는 가치” 를 느끼지 못해 우울함이 찾아오기도 했다.

밭벌이는 해야 되는데, 약간 육체 노동이 나한테는 좀 더 맞을 것 같았어요. 정직한 것 같았고. 근데 임금 노동은 공장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지만 같은 육체 노동이고. 임금 노동은 내가 노동을 하는데 왜 사장들이 내가 창출한 이익을 다 가져가는지. 어쨌든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았고. 알바 같은 거는 할 수 있어도 [임금 노동이] 내 주요 생계 수단이 되는 게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았고, 그래서 멈춰 놓은 것 같아요.

<C, 30대 후반>

C는 농사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사무일 보다는 “정직한” 육체 노동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농사 외에도 육체 노동은 있으나, 도시의 임금 노동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주요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택했다.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여성은 육체 노동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농사에 대한 편견 없이 자연과 소통하는 육체 노동의 즐거움을 이야기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성별에 따른 특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2) 대안적 삶의 실천: 신자유주의적 삶의 방식으로부터의 탈주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유기농업 혹은 자연농을 지향하였으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유기농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규모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닌, 소농의 형태를 추구했다. 혼자 농사를 짓는 C와 같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땅을 일구어 가고 있다. 소농의 형태를 추구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는 다른 사회적 행위 양식”을 지향한다는 것이며, “세계와 물질적 재화의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들은 내가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땅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툼젠, 2013:172).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일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들은 어떻게 소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되었다.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어떤 채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당근이나 가지 같은 거였을까요, 딱 그걸 보는데 애가 땅에서 올라왔는지 나무에서 뺏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먹는 건 내가 좀 알고 먹어야 되지 않나.

<H, 40대 초반>

여기 내려와서 먹는 음식에 만족도가 높고. 서울 도시에서 장을 봐도 그렇게 쓰레기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해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

요. 여기 이제 로컬 가면 생산자들이 다 있어서 유기 제품 골라서도 먹을 수 있고 저렴하게 산지에서 바로바로 먹을 수 있고.

<B, 30대 후반>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원하는 것, 그 생활이 다 일치되고 연결되는 거. 내가 만든 거, 심은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잠잘 때까지. 그 사이클이 다 좀 연결되는 거 그런 것이 전공부에서는 가능해서. 같이 생활하니까. 다 이어지고,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전공부] 실습 기간에 왔을 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G, 30대 초반>

H는 귀농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로 자신이 먹는 음식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 채 사는 삶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을 꼽았다. 그리고 B는 도시에서 생활할 땐 시장을 보면 포장 등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만 농촌으로 이주 후에는 유기농업을 통해 기른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G는 풀무학교 전공부에 진학 전에 다녔던 대안학교에서는 농사 짓는 것과 급식이 연결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고 했다. 하지만 풀무학교 전공부에서는 직접 기른 작물을 함께 요리해서 먹는 등의 생활의 사이클이 연결되는 것에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G는 약 5년 동안 비건을 실천하고 있다. 인터뷰를 G의 집에서 진행했는데,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름을 만들어내는 생태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G가 말하는 “일치되고 연결되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 일상을 바꾸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래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약간 자급농처럼 읍내 나가서 알바를 하든가 생계가 안 되면 알바하고 텃밭 비슷하게 뭐 몇 평인지도 생각도 안 했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난 걸로 시장 가서 팔면 되겠지. 그런 걸로 전기세 내고 먹을 거는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니 그냥 채소 같은 거 길러서 먹고 주변에서 얻어 먹고 그러면 되겠지. 되게 추상적으로 왔어요. 일단은 도시에서 좀 떠나오는 거. 그게 먼저였던 것 같아요.

<C, 30대 후반>

귀농한 친구들은 힘든 거예요. 마을에서 텃새도 있고, 자기가 이제 안 해본 거를 해보아야 되고 이래서. 맨날 고민하고, 농촌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떻게든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걱정은 별로 없었거든요. 돈을 못 벌어도 시골에서는 굶어죽지는 않아요.

<E, 40대 초반>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농사는]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소득, 생산을 기대하는 방식이 적용이 안 되는 거. 마음을 놓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주로 저도 이만큼 하면 이 정도 나와야 되고 그거에 익숙하고. 자본주의에서도 일을 하면 뭔가 그런 게 계속 다 적용이 쪽 돼 왔는데, 거기서 마음 비울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 좀만 더해서 사고로 이어지거나 좀만 더 해서 누군가한테 무리가 되거나 이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하는 만큼 하는 게 나한테는 그런 연습을 하고 싶구나 약간 이런 생각. 그러면서 농사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더 소통하고 싶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연농 학교 다니면서 제 연령대는 많지 않고 지금은 또 많이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B, 30대 후반>

신자유주의는 개인에게 타인과의 경쟁을 통해 더 많은 부의 축적을 부추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도시를 떠나와 농촌에서 적게 벌고 적게 쓰며,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C는 도시에서 임금 노동의 형태를 추구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농촌에서 소농의 삶을 꿈꿨다. 자신이 기른 농작물 혹은 이웃에게 받은 농작물로 식사를 해결하고 내가 쓸 만큼만 적당하게 버는 것을 지향했다. E 또한 귀농을 통해 큰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벌면 된다는 생각에 큰 조바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B는 농사는 일한 만큼의 대가가 등치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는 노동을 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매긴다. 그러나 농사는 인간의 노동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기에 소농의 농사일 자체는 자본주의적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B는 몸에 무리가 갈 정도로 욕심을 내서 노동하기보다는 나의 속도에 맞추어 농사 짓는 방법도 알아가고 있다.

지금 제도와 지금 정책에 그냥 살아서는 외롭고 지칠 거 같아요. 그런 문제 의식이 작년 가을, 올해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야 되겠다. 이 규칙을 기존에 규칙을 벗어나서. 야 너네끼리 그러고 규칙 세우고 살아. 난 다르게 할 거야.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 나는 좀 유약해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마음이 소심하고 그래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 줄 팀을 꾸렸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 어쨌든 가능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짓밟히더라도 뭔가 재밌는 걸 찾는 스타일 이여서,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짓밟혀 봤다 하지만 난 일어설 거야. 이렇게 해서 찾고 있는 시기라 재미있기도 하지만 불안하기도 해요.

<C, 30대 후반>

한편, 전업농인 C는 현재의 구조에 머무르지 않고 혼자가 아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팀을 꾸려 “대안적인 모델”을 찾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부당한 규칙들에 적응하지 않고, 여러 실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안적인 모델을 찾아 나서야만 구조가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농사뿐만 아니라 지역 안의 단체에서의 일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G와 H는 ‘꿈이자라는뜰(이하 꿈뜰)’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이 단체에서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이들과 일종의 기본 소득과 같은 실험을 하고 있었다.

꿈뜰에서 그런[시급]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기본 소득처럼 주고 다 같이 일을 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일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는 시급제로 계산해서 주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일하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H, 40대 초반>

처음에는 시간 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됐거든요. 시급 얼마. 근데 제가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일하기로 했으니까 몇 시까지 있어야 하고. 나 할 일 다 했는데. 시간에 맞춰서 있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마음을 얘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일을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시간 당 얼마가 아니고 그냥 기본 소득 그런 게 있는데 꿈뜰에서 일하는 게 내가 뭘 얼마만큼 해도

그냥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싶고 그 얼마를 받기 때문에 이 만큼이 아니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주는 돈. 네가 일을 이만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싶다, 나는. 그랬어요. 근데 좀 두렵다. 내가 일을 할까? 그런데 이렇게 해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런 방향으로 친구들이 해보자고 그래서 실험적인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G, 30대 초반>

H와 G는 귀농 후 일하는 단체에서 처음에는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했지만, 논의를 통해 얼마만큼의 일을 하든지 간에 모두 같은 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 G는 단체 내에서 기본 소득과 같은 형태를 제안한 이유를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주는 돈” 이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는 노동에 따른 대가로 얻는 돈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를 위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기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받는 돈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임금 노동 체제를 전제” 로 하며, 이는 곧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의존해야 한다” 는 것을 뜻한다(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툼젠, 2013:322). 연구 참여자들의 소농으로서의 삶, 단체 안에서 새로운 임금 구조 만들기와 같은 실험은 신자유주의 구조에서 ‘정상적’ 이라 일컬어지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한다.

3) 농사짓는 삶의 유지를 가로막는 현실

대안적 삶의 실천을 위하여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짓는 삶을 유지하는 것은 녹록치 않다. 농업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흐름 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본 항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귀농인으로서 농사를 짓는 데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농사를 내가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생계 때문에 너무 변수가 많더라고요. 미친 듯이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병이 온다던지 이러니까 이게 내 생

계가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생겨서 구조적인 일자리로 반상근 정도로 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C, 30대 후반>

C는 비빌언덕 프로그램에서 선배 귀농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 여성 혼자 농사를 짓고 있는 흔치 않은 경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사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C는 농사일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가져가고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반상근 일자리를 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어떤 때는 농사 재배 기술에 집중을 초반에 하면 되겠지 싶었고. 그 다음에 판로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잘 잡으면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겠구나. 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게 내 목적이니 그랬는데. 또 다시 재배 기술에 밀천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배 기술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 농촌에서 나는 좀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지역 활동도 하고 대안적으로 사는 친구들도 좀 많이 만나면서 자극도 좀 받고. 살던 대로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재배 기술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사람들하고 나누는 대화도 그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대로 또 살게 되는 거 같은 거예요. (...) 어쨌든 생산비 보전이 되지 않으니깐 농산물 가격이 10년 전 감자 가격 하고 지금 가격하고 똑같다고 선배들 맨날 그러는데. (...) 이걸 뭐지. 근본적인 거 바뀌지 않으면 힘들겠다. 진짜 몸을 갈아넣는, 뼈를 갈아 넣어야지 살거나 아니면 완전 규모를 크게 해서 기계농을 하는, 그런 대농으로 변신하지 않는 이상은 저와 같이 소농에 어쨌든 1인 가구를 하는 인력도 적은 이 규모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대답을 찾지 않으면...

<C, 30대 후반>

저 원래 내려올 때 꿈이 농사짓고 먹고 살리라. 그거에 전 단계로 반농반X²⁵⁾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전업농 되겠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업농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전업농에서 먹고 살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만약에 전업농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고생하면서 안 살고 내려오라고. 돈 안 줘도 그냥 다 내려올걸 뭐 이런 식인데 먹고 살 수 없으니깐. 진짜 뼈 빠지게 해야지, 내가

25) 삶의 반은 농사를 짓고, 나머지 반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의 형태를 일컫는다.

생각했던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그걸 원한 건 아니니까요.

<H, 40대 초반>

농사의 경우 농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적인 측면과 더불어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이 소농의 형태이기 때문에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전업농인 C는 생계를 위해 반상근을 고민하고 있고, 전업농을 희망하는 H는 현재의 구조 속에서 전업농으로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한다. H는 전업농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농사 지을 땅이 없고, 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있고, 살아갈 집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또한 C와 H는 농사를 짓는 것 외에도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함께 있다. 사례로 제시하지 않은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도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마련한다면, 이들은 더욱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고민을 하고, 대안적인 삶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동네에도 청년 농부들이나 귀농 농부들이 유입이 많이 되는 편인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유입이 돼서. 하우스를 1년 임대해 줘. 그런데 사실 하우스 1년 임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인증도 받고 뭐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1년 가지고는 턱없이 짧은데 그런 걸 지원해줬다. 내가 청년 농부를 지원해줬다. 귀농 농부를 지원해줬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A, 30대 초반>

한편, 지자체에서 귀농·귀촌인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단발적인 지원 정책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A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귀농인 현장형 실습 지원, 청년 창업농 및 후계 영농인 안정지원사업 등 청년 농부, 귀농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 농사짓는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단단한 기

반이 되는 정책은 많지 않다.

제가 생각할 땐 경제적인 것들을 정책으로 승화시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 작년 7월에 막 이것저것 신청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많아요.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어려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뭐 하나만 얘기를 해야 한다면 기반을 잡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 기계질 하고 이런 힘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많지만, 여성은 없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동반되면 정착하거나 내려올 때 결심하기에 조금 더 쉽지 않을까.

<F, 30대 후반>

F가 말한 것처럼 현재 귀농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 지원이다. 또한 F가 언급한 것과 같이, 농촌에서는 기계를 다루는 아르바이트는 보통 남성들이 하는데, 여성들에게는 쉽사리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데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농촌에서 배제되는 비혼여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농업인 본인 명의로 된 농지가 있는 비율은 36.8%였다. 농업에 참여하지만 본인 명의의 농지가 없는 경우는 일반농 62.3%, 고령농 50.0%, 다문화 여성 95.6%, 귀농 여성 67.2%로 나타났다. 여성이 본인의 직업적 지위를 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²⁶⁾로 인식하는 경우는 38.4%이며,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중은 6

26) 농민으로서 여러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경영주 혹은 경영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로 남성들만 등록이 되어 있었다. 2016년 3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여성농민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해졌으나 남편이나 시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여성농민이 단독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나 여성농민의 경영체 등록은 미미한 수준이다(정숙정, 2021).

1.6%로 조사 되었다. 여성농업인 스스로 자신을 경영주로 인식하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 60대 32.1%, 70대 이상 55.4%인 반면, 가족종사자로 인식하는 비중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 30대 이하 88.6%, 40대 73.9%를 차지하였다. 또한 현재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남성과 비교하였을 때, ‘예전보다 높지만 남성보다 낮거나 여전히 남성보다 낮다’ 는 의견이 81.1%였다.

위 보고서의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기혼 여성이라고 해도 농촌 공동체 안에서 지위가 남성과 같지 않다. 가족을 단위로 보았을 때 경영체 등록을 할 때 둘 다 등록하기보다는 가족에서 대표적으로 한 명이 등록하면 비용적 측면, 과정적 측면에서 훨씬 수월한 면이 있다. 문제는 이 대표성을 큰 고민 없이 당연히 남성이 획득한다는 것에 있다.

아래와 같이 농협의 경우 같은 조합원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자재나 출하가 남성 농민의 명의로 이뤄지고 있어, 여성들이 임원을 맡기에도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 비율이 8.X%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기본 농협법상으로는 한 구좌만 해도 되지만 실제로 지역 농협에서는 평균 출좌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 임원이 됐을 때는 그 출좌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윤분배당을 고려했을 때, 농협에서 자재를 구매하고 농산물 출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 자재나 출하의 경우 남성 농민의 명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으로의 이윤분배당의 경우는 적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 제약 요건은 할당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높은 진입장벽도 해당됩니다.²⁷⁾

농촌은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기에 제약이 있는 공간이다. 농촌의 이러한 가부장성은 귀농한 비혼여성들도 비껴갈 수 없다. 앞서 2절에서는 귀농한 비혼여성들이 대안적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비혼여성이기 때문에 농촌에서 겪는 문제들을 살핀다.

27)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중 부여군 여성농민회원의 토론내용이다.

1) 여성 노동의 비가시화

농촌에서는 주로 가족농의 형태로 농사를 짓는다. “가족농의 경우 농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가부장이 하며, 특히 농사일, 경제권에 관한 한 남성들은 주도권을 쥐려” 한다(정숙정, 2021:126). 농사일은 여성들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경제적 주도권은 주로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성농민들의 노동은 가시화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남성과 비교해도 노동 강도가 낮지 않은 노동을 수행해 온 여성들이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주변 사례를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일은 다 여성이 해요. 이게 제가 여자라서 아니고, 어머님들이 다 해요. 아버님들은 안 해요. (...) 힘든, 고된 육체 노동은 보통 다 여성 분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하거나 이런 친구는 아니지만 농촌에서 여성이 우대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허리 구부러진 할아버지들은 많이 없어요. 할머니들은 90% 이상이 허리가 굽어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다 남성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떨궈주듯이 자 여성 바우처 줄게. 그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그니까 농업에 1년 들어와서 보니까 되게 좀 답답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싶기도 한 게 많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자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좀 인정하고 서로 도왔으면 좋겠어요.

<F, 30대 후반>

농사는 여성들의 노동 없이 유지될 수 없다. F의 경우 사회운동의 경험이 없는 유일한 연구 참여자이다.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자” 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F의 눈으로 보기에 농촌에서 여성들은 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우대” 를 받지 못한다. 여성은 주로 기계를 다루지 않을 뿐, “고된 육체 노동” 은 여성들이 하고 있다.

☆☆:실제로 마을에 살면서 출·퇴근하다보면 밭에서 일하는 어머님들, 할머니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전공부 때 마을 둘러보기라는 과정이 있거든요? 한 학기에 대여섯 번 정도 흥동 일대 농가를 돌아보는데 전부 남성 농

부들이 있는 농가였어요. 요즘 전공부 후배들한테 물어봐도, 우리가 갔던 농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올해 초 농장에서 일 시작할 때 농장과 매칭하는 과정에서 여러 선배 농가들을 갔는데, 여성이 농부인 농장이 한 곳밖에 없었어요. 일상에서는 농사짓는 여성들이 많은데, 막상 사업이나 농사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면 대부분 남성 농부들이더라구요. 그런 자리에서 여성 농부들이 주체로 이야기하는 기회가 왜 거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7 · 2018 그녀들의 흥동이야기:145>

위 자료에서 인터뷰이 ☆☆은 풀무학교 전공부 재학 시절 마을 둘러보기 과정에 모두 남성 농부들이 있는 농가에 갔던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일상에서는 농사짓는 여성들이 많은데, 막상 사업이나 농사 이야기하는 자리에 가면 대부분 남성 농부들”이라고 말한다. 풀무학교는 대안적 삶을 지향하는 학교이자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민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 동네 할머니들도 평생 풀 뽑고 농사 지었는데, 농업인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이해해 준 적이 없고. 그런데 그게 지금에 저야 경영체 등록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이 동네에서 농업인으로서 인정받지만. 계속 이런 젠더 감수성이 없는 세대가 우리 세대까지 계속 아무 교육도 받지 않고 이어진다면 지금의 현실과 달라지는게 없겠죠. 우리가 안전하게 자리 잡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물론 자리를 잡고 나서 저에게 아무 재산이 없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농촌에서 자리를 잡기까지가 굉장히 여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농업인들이 교육 많이 받거든요. 그런 교육에 젠더 교육이 꼭 다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강사들이 포진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1차 과제라고 생각해요.

<A, 30대 초반>

기존 농촌 공간에서 여성 농민들이 주체화되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A는 가부장적인 농촌 문화가 자신의 세대까지 이어진다면 불평등한 구조는 그대로 이어져 갈 것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에 A는 농촌에서 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여성 농민)가 안전하게 자리 잡는 게 우

선”이라는 생각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비혼여성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배제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저는 잘 못 느꼈지만 혼자 뭔가를 듣겠다고 해도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지원을 조금 더, 남성들이 한다고 할 때 더 실어 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전해 들긴 했어요.

<B, 30대 후반>

농촌의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연구 참여자들이 농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B는 자신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남성들에게 힘을 더 실어 주는 분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보통 연구하시는 분들은 흥동, 완주 뭐 이런 곳들은 굉장히 공동체가 활발하고 여성들이 좀 안전하게 귀농·귀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흥동에서도 그 어떤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흥동에서도 학교 주변에 있는 마을 커뮤니티를 이야기 하는 거고, 사실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물론 가족들이 여기 있고, 저희 큰 고모, 둘째 고모, 당숙 고모도 있고 이런 동네거든요. 여기가 그냥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무연고지 여성 농민들에 비해서 좀 안전하겠죠. 그런 것이 있음에도 저 같은 사람도 여성이란 이유로 위협을 받고, 결혼과 육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와 나한테 이러는데 아무 기반이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심하게 할까. 그리고 이 동네는 그나마 그래도 어떤 뜻을 갖고 공동체성, 가치 중심으로 어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인데. 다른 동네 얼마나 심할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A, 30대 초반>

A는 흥동이 외부에서는 안전하게 귀농·귀촌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흥동에서도 “여성이란 이유로 위협을 받고, 결혼과 육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또한 A는 흥동에 가족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의 경험을 겪는데, 연고가 없는 여성 농민들은 얼마나 더 큰 배제가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농촌에서 여성들의 노동이 비가시화되는 현실은 비혼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여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노동만 부각되는 것은 여성들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비혼여성들은 온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2) 성원권의 문제

농촌에서는 기본 단위를 가족으로 두기 때문에 비혼여성들이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가족을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단지 여성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진행자: 여자 혼자 살면 집 구하기도 어렵고, 오래 살기도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 그런 말도 많이 들었죠. 여자 혼자 살면 주인이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나가라고 한다더라. 집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풀을 잘 못 맨다, 여러 이유들로. 그래서 불합리하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던데. 그래서 저도 미리 겁을 좀 먹었죠. 그런데 2년쯤 살다가 저 역시도 이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한테 ‘집을 깨끗이 관리를 잘 못한다’고 이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풀맷는데. 그런데 나중에 땅 사놓고 집 지으려고 기초놓고 하는데, 갑자기 이장님이 오셔서 계속 살아도 된다고 하셔서 당황했죠. 근데 나는 이미 계약도 다 했으니까.

<2017·2018 그녀들의 흥동이야기:134>

위 자료집의 진행자 질문을 통해 “여자 혼자 살면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마을 안의 분위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이 ●●의 경우와 같이 집 안에 잡초 관리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다가, 이후에 말을 바꾸어 계속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듯 농촌에서 여성들의 주거는 안정적이지 않다.

집을 구할 때도 혼자 사는 여자한테는 집을 잘 안 주시거든요. 애들이 있는 가족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없으면 남자 혼자, 남자 혼자도 안 되면 여자 혼자 순으로 집을 주는 건데, 혼자 사는 여자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시골집이

약간 허술하기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기도 해서 어르신들이 집을 빌려줄 때 신경 쓰이고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H, 40대 초반>

H에 따르면 집을 구할 때 ‘가족-비혼 남자-비혼 여자’ 순으로 순번이 정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구 참여자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농가주택의 경우 오래된 집이 많다 보니 비혼여성의 경우 안전상의 문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귀찮게 여겨 집을 잘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남성 귀농인 혼자 이주했더라도 여성보다 앞 순위에 배치되는 것은, 남성의 경우 공동체에서 역할을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것이라고 쉽게 상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빈집은 너무나 많은데 빌려 주지를 않으세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좀 선을 긋기는 뭐 하지만. 아직 경제적인 자립도가 크지 않은 청년들은 집을 짓기도 좀 애매한. 그리고 또 반대로 대출이나 뭐 다른 영역들을 좀 바라봐서 집을 짓는다 하면, 우선 너무 계산적이긴 한데, 농업으로 해서 그 돈을 갚기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a도 b도 선택을 할 수 없는 쟁점에 이르게 되는데 빈집은 안줘. 주는 집은 쓰러져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성 혼자든 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안전한지 안 한지. 그런 곳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F, 30대 후반>

F는 빈집은 많지만 구하기가 어렵고, 대다수의 귀농인, 특히 청년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대출을 해서 집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통해 큰돈을 갚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제 집에 살게 되면 그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들은 다 이제 주변에 원주민 분들이 있고,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것도 여자이고 세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주민으로 잘 안 쳐주세요. 집을 사서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에 내는 회비 같은 게 있어요. 연회비는 아님데, 들어갈 때 내는 회비가 마을마다 다른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런 것도 있고. 적게는 몇 십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 집을 사서 들어가면 이제 마을의 집들이 같은 그것도 해야 되고, 마을 회관에 뭐 이렇게 짝 해서 집들이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약

간 그런 신고식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세 들어서 오면 언제 떠날지도 모를
뜨내기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H, 40대 초반>

H는 직접적으로 “주민으로 잘 안 쳐준다” 는 이야기를 한다. 귀농과 동시에
땅과 집을 사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대다수의 귀농인은 세 들어
서 사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마을에서는 “언제 떠날지도 모를” 사람으로 여겨지
기 때문에 마을의 성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귀농 여성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집을 내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마을의 성원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살 집을 마련하여야 마을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에서는 비혼
여성을 함께 살아갈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금방 떠날 사람으로 취급하여 쉽게
성원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다.

3) “안전한 울타리” 가 아닌 공동체

비혼여성들이 혼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안전은 중요한 문제이다. 충남 홍성
은 대안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촌과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동체가 비혼여성들에게도 다른 구성원들과 마
찬가지로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더불어 살펴보고자 한다.

옛날에 풀무학교 선생님을 딱 납치를 해서 집에 데려가 가지고 애를 낳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대요. [연구자: 엄청 옛날이에요?] 그때 낳은 애가 지금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정도예요. 거기서 무서운 게 뭐냐면, 납치 했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용인한 마을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공포 영화가 따로 없어요. 지금 같으면 그거 완
전 범죄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면 그 사람 잡혀가야 되는 건데 그때는 그런
게 없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납치하게 놔두고, 그렇게 살게 놔둔 거잖
아요. 그게 너무 끔찍해요.

<H, 40대 초반>

과거에도 마을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H가 더욱 놀란 지점은 위와 같

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마을이다.

그런 부분은 계속 있어요. 계속 짝어붙이고. 그 다음에 육아나 가사 노동하는 전업 주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문화적인 압박. 그 다음에 실제로 행동이 취해지는 게 있죠.

<C, 30대 후반>

C가 말하는 “짝어 붙인다”는 표현은, 마을에서 비혼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남성을 소개해주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결혼을 해야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마을에서 결혼을 원하지만 하지 못한 남성들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C는 이것을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문화적인 압박”이라고 말한다. 이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 역할 구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건 몇 년 전 일인데 여자애 두 명이 시골집 빌려서 살았어요. 낮에 친구들이 놀러와 있는데, 똑똑하길래 나가봤는데 남자 마을 어르신이 오신 거예요. ‘집에 혼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있었어서, 괜히 말 나오는 게 싫어서 그냥 혼자 있다고 말했는데 아저씨가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던 친구가 그 상황을 알게 돼서 아저씨가 도망을 갔대요. 근데 그 아저씨는 마을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바로 그 집을 나왔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자 사는 여자한테 집을 내주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그런 게 있어요.

<H, 40대 초반>

혼자 사는 것을 주변에서 알게 되면, H가 말한 사례와 같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농촌 마을은 좁은 관계망이기 때문에 혼자 산다는 사실을 마을 구성원 대부분이 알 수밖에 없다. 그리고 H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여성들에게 집을 잘 내어주지 않으려는 분위기와 연결 짓는다. 농가주택은 보안이 철저하지 않고, 마을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귀찮아하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기존의 농촌 가부장제와 관련된 문제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충남 홍성에서 새로운 공동체성을 실험하는 공간에서는 가부장적 성차별, 성폭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행성 모임을 시작하게 된 게 저는 전공부. 전공부에서 겪었던 성폭력 사건이 제가 행성에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전공부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잘 해결하지 못했죠. 그냥 쉬쉬하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잘 없었다. 나도 없었다. (...) [제가 피해] 당사자였어요. 그거를 제가 물고 놓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되게 만족스러워요. 엄청. 그러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고, 또 그 성장의 길을 같이 가주는 행성이라는 그룹이랑, 그 그룹이 또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G, 30대 초반>

G는 풀무학교 전공부 재학 당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당시 풀무학교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잘 해결” 하지 못했고, 이는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풀무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는지를 물었을 때, G가 재학할 당시에는 교육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G는 전공부 졸업 이후 행성 활동을 통해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았고, 이후 풀무학교에서 직접 성평등 교육을 진행했다.

여기도 안전한 곳 만은 아니고 (조용히 속삭이며) 이상한 아저씨들도 많고. (...) 웃긴 게 토박이 사람들이 [성]추행을 했던 얘기는 ‘어이구 왜 그랬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안에서의 성추행은 제가 본 게 두 개인데. 약간 성추행하신 분들이 같은 영역권에 있으니까 평소라면 피해자를 당연히 보호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해자가 우리 그게 되니까 상황을 들어봐야 된다고 하거나] 2차 가해 한다거나. (...) 그냥 우리들은 다 아는 약간 그런 가법지만 가볍지 않은 그런 얘기들 되게 자주 듣고. (...) 흥동이 울타리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저한테, 여성한테는. 저는 그게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흥성은 절대로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부차적으로 여기 흥동 와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흥동 공동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으로서 그런 것들은 좀 다른 개념이다.

<I, 20대 중반>

I는 자신을 비롯한 여성들에게 “홍성은 절대로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 라고 이야기를 한다. I는 “토박이” 와 “우리” 로 그룹을 나누고 있는데, “토박이” 는 홍성에서 오랜 기간 뿌리 내리고 살아온 선주민을, “우리” 는 대안적 공동체를 실험하고 있는 이주민을 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우리” 안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공동체 안에서는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대안적 공동체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적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공동체가 ‘안전한 울타리’ 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경험의 차가 다른데 제가 같이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은 정도는 다르겠지만 조금씩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감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척 지면 안 된다, 척 지면 여기서 살 수 없다. 그게 더 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게 정도의 차이가 다르겠죠. 저보다 더 힘들었던 친구들 아예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저처럼 완전히 척 지고 모른 척하고 살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좋게 좋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 대부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척 지면 여기서 못 산다. 살기 힘들다.

<D, 40대 초반>

대안적 공동체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귀농·귀촌인들에게 집 구하기, 일자리 구하기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이 기득권으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을 안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척 지면”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동체가 그래도 좀 활발하고 주민자치 활동이 많은 동네잖아요. 그럼에도 권력이 남성 중심적인 게 많아요.

<A, 30대 초반>

공동체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의 관계성은 성별과 무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드시 성별과 관련이 있지 않을 때에

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 A가 말한 것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년 남성들이기 때문이다.

농촌 역시 크고 작은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대안적 공동체라 일컬어지는 공간도 이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성차별, 성폭력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비단 충남 홍성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안적 공동체의 가치에는 공동체의 일원인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V. 귀농 비혼여성들의 페미니즘 실천

2000년대 중반부터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에서는 농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담은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정숙정, 2021:136~137). 농촌으로 이주하여 삶을 살아가는 개인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하고, 농사, 환경, 먹거리 등을 주제로 여성 농민들의 글을 칼럼의 형식으로 연재하였으며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여성, 농촌을 연결한 내용을 다루었다. 기후위기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감에 따라 농촌에서의 삶에 관심을 둔 언론 기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김현미(2021)는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지들을 보여 주는 페미니스트들의 존재가 소비 자본주의나 소수에게 독점된 진행(專行)의 권리에 쉽게 함락되지 않을 실질적인 힘이라고 한다. 모든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하지 않고, 또한 연구 참여자 전부를 페미니스트라 칭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공고한 자본주의 가부장제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급적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5장에서는 귀농 비혼여성들이 농촌 가부장제에 대항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살펴본다. 또한 비혼여성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공동체 사례를 통해 비혼여성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얻고 있는지 분석한다.

1. 농촌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는 비혼여성들의 존재

농촌 공간에 여성 혼자 이주해왔을 때, 주변에서는 결혼 여부를 가장 궁금해한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차렸을 땐 동네에 있는 결혼을 하지 않은 남성

과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주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비혼인 연구 참여자들은 농촌 가부장제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에 어떻게 저항하면서 농촌의 가족 중심주의에 대항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0대까지는 계속 주변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억지로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고. 옛날에는 처음 뵈 분인데 나이가 몇이나, 결혼 했냐, 좋은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억지로 나간 적도 있었어요. 너무 집요하셔서 이걸 안 나가면 끝이 나지 않는다, 나가서 끝장을 보자 그런 적도 있어요. (...) 한번은 횡단보도에서 만난 할머니가 ‘시집 안 가? 우리 집에 괜찮은 아들 하나 있는데’ 했던 적도 있어요.

<H, 40대 초반>

적극적 비혼인 H는 30대까지 주변 어른들이 너무 집요하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해서 억지로 나간 적이 있었다고 한다. H와 딱히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나가던 어른인 경우에도 결혼 여부를 묻고, 자신의 아들을 소개시켜주려고 한다.

[연구자: 흥성에 내려왔을 때 주위에서는 어떤 반응이었나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왜 아가씨가. 이거고. 빨리 결혼해야. 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가 제일 많이 ... 그러니까 이 힘든 걸 해서 뭐해. 내가 뭐 밭을 보고 있거나 뭐 다른 걸 하면 엄청 대견해 하시면서도 ‘아, 이 고생스러운 걸 왜 해’ 그러니까 또 시집 간 줄 알았는데 안 갔다 하면, ‘시집이나 가지 뭐하는 거야 지금~’ 언성이 더 높아지시죠. (웃음) ‘아가씨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시선은 염려와 걱정이 제일 많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대견하게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좋지는 않았어요. 내려오자마자 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시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그런 사회에서 살지 않던 저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니까.

<F, 30대 후반>

F의 경우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적극적 비혼은 아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혼자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아가씨가 여기서 뭐하는거냐”, “시집이나 가지 뭐하냐” 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힘들고 좋지 않았다고 한다. 농

촌에서 결혼 여부 등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 것이 힘들었고, 이는 이주하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부침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여부를 묻는 것과 더불어 억지로 소개를 시켜 주려 하는 것이 부당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대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만나는 언니들은 주변에서 애 둘이 있는 줄 안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서 오히려 오해 받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나한테도 처음에 그냥 거짓말로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들은 기습적으로 내가 그 막을 늘 생각하지 않는 이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막을 못 치고 있죠. 그냥 그게 마음 편하고, 그냥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B, 30대 후반>

B가 말한 것처럼 결혼, 연애 등 개인 정보를 묻는 질문은 “기습적으로” 받는다. 그렇기에 항상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B보다 먼저 홍성으로 이주한 주변 지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조언한다.

동네에 찍어 붙인 분이 있었어요. 작전을 짜셔가지고. 마을 회관에 제가 초반에 한 달 정도 농한기인 1월달에 내려와가지고. 어르신들이랑도 친해지고 농사 정보도 얻을 겸, 한 달 정도는 점심을 매번 먹으러 다 얻어먹으러 갔어요. 할아버지께 맨날 밥을 해먹거든요. 그때 내가 집 앞에 있는 하우스 비닐이랑 문짝을 고치고 싶은데 문짝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거를 자기 노총각 아들내미가 할 수 있으니, 내가 그 집에 완두콩 비닐을 씌워주고 그러면 그 노총각 아들이 설비 쪽 일을 하니까 이걸 하면 되겠다고 본인들이 눈빛 교환을 하시더니 이렇게 됐죠.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저는 밥을 사드렸지, 그분한테. 형님한테. 밥을 사서 통치는 걸로. 그래서 형님이라고 일부러 표현하고.

<C, 30대 후반>

적극적 비혼인 C는 노총각 아들과 연결시켜 주려는 어르신의 의도를 파악하고,

집 앞 비닐하우스를 고쳐 주는 대가로 소개팅과 같은 형식이 아닌 밥을 사드리
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일부러 ‘형님’ 이라는 호칭을 사용
하기도 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쉽게 웃으면서 받아치긴 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머니, 어
디 있어요. 데리고 오셨어요? 저 내일 가요?’ 이렇게 농담처럼 하면 막 웃
으면서 지나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 두 개의 시선이 항상 따라
붙고, 공존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한 저로서. [연구자: 처음에는 스트레
스였는데 지금은 대응하는 스킬을 얻으셨네요.] [스킬을] 찾아낸 거죠. ‘누
구 데리고 오세요 어머니. 제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누구 데리고 와주시
면’ 이런 식으로 그냥 농담처럼 하면 어머니들도 그냥 넘기시는 것 같아요.
매일 똑같은 말 매일 똑같이 해요.

<F, 30대 후반>

F와 같이 스스로 대응할 만한 언어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초반에는 여러 질
문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이 결혼을
부추기는 말을 하면 “쉽게 웃으면서 받아치며” 농담으로 받아넘기고 있다. 이는
F가 농촌에서 살아가려면 주변 사람들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름의 ‘스킬’ 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 압박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 해결 방
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C, E와 같이 신뢰할 만한 주변 어르신에게 도움을 받거
나 부탁을 하기도 한다.

작년까지도 [소개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랑 같이 나 없는데 연락
도 없이, 우리 동네 이장님한테만 연락해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바로 집 앞
이 이장님 덕이니까, 그 집에 가면 나를 볼 줄 알고 내가 없는 사이에 왔다
간 거야. 밥이나 한 번 먹게 해 달라고 아버지랑 그 아들이랑. 그래가지고
이장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스스로 연락처를 받든지 하지. 아버지랑
쫓아오는 게 뭐냐. 그리고 자기가 봤더니 좀 뭔가 어떤 단점이 있는 것 같
다. 너랑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자기가 커트를 해줬어. 그전에는 계속
바람을 넣더니 그 상황을 딱 보고 나서 커트를 해줬어요.

<C, 30대 후반>

저희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었다고 봐요. 할머니가 너무 스마트하고 쿨하세요. 시골에서는 사람이 없다보니 여성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치마만 들렀다 하면(웃음). 그런데 그걸 우리 할머니가 다 막아주셨어요. [연구자: 어떻게 막아주셨어요?] 할머니들이니까 또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그 아가씨 뭐 중신을 서라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할머니한테 한 번 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면 진작에 갔겠죠. 이 나이 들어서 안 가는 건 안 가겠다는 거겠죠.’ 그렇게 한 번 얘기를 제대로 해 드린 후부터는, 할머니께서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 그 아가씨 중신 좀 해’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 안 한대’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E, 40대 초반>

C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장님을 통해 소개를 시키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다. 처음엔 이장님도 연결을 해주려고 했지만, “어떤 단점”이 있는 것 같고, C와도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그제서야 정리를 해주었다. E는 집을 지어서 살기 전, 이웃 어르신과의 관계가 좋았다. E의 주변에서도 “중신을 서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E는 이웃 어르신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음을 진솔하게 말씀드렸더니 어르신께서는 “막아” 주셨다.

이제 막 누가 결혼해라 이런 말, 그때 옛날에 전공부 창업하고는 어르신들이 관심만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결혼] 안 하고 사는 친구들도 많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 진짜 안 듣는 것 같아요.

<G, 30대 초반>

G는 풀무학교를 통해 이주를 했던 초반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친구들도 많고, 다양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니 이전에 비하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는 것 같다고 한다. 즉, 홍성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결혼에 대한 압박을 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고한 농촌의 가

족중심주의를 이주해 온 사람들로 인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A와 같이 직접 대표가 되어 업체를 운영할 수 있고, C와 같이 조합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 농촌에서 여성들이 직접 나서서 농사를 짓고, 마을 공동체에서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농촌 공동체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시발점이자, 이미 균열을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여성들이 많아진다면 기존의 가부장적 문화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곧 공고한 농촌 가부장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공동체

본 절에서는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홍성에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네 가지 사례를 다룸으로써 비혼여성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단체(모임)에서 발행한 자료집,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홍성여성농업인센터(이하 홍성여농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센터가 위치해 있는 흥동면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약 350여 명의 회원이 있다.²⁸⁾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센터이지만 홍성에서 몇 안 되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단체로서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 등 여성 농업인이 속한 마을 공동체가 풍요로워지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다. 크고 작은 모임을 지원하며 작은 모임들이 단체화되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28) 홍성여성농업인센터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홍성은] 느슨한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뜻이 맞는 친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는 그런 장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하고 싶어. 장소가 필요하면 장소 빌려주고, 장소를 빌려서 막 하다 보면 이 친구들한테 뭐 책. 우리 책 좀 사고 싶은데 책을 좀 사줘. 책을 사주기도 하고 전시회를 하고 싶어. 그럼 전시회 비용을 내주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거를 좀 엮는 어떤 아지트 같은 곳이라 할까.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J, 50대>

홍성여성농업인센터장 J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홍성여농센터는 뜻이 맞는 사람들과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고, 활동해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아지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연령대를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청년 농부들을 대상으로 텃밭 활동비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진행했다. 명상 모임, 크로키 그리기 모임,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 채식 김치 담그기 모임 등 6개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청년들이 와서 농사만 짓고 일만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재미를 느끼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면 함께 말을 들어주고 무언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하고 편안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정착이라는 게 큰 게 어려워서 정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등 비빌 곳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어려운 거를 말하거나 같이 고민하거나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J, 50대>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하는 데에는 주거, 생계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J가 말한 것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등 비빌 곳”이 필요하다.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착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소모임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2018년과 2019년에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안전 주택 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임대 주택 지원사업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월세를 지원했고, 4채의 세어하우스를 임대하여 1채당 3인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연구 참여자 B와 D가 흥성으로 이주해 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전히 여성 귀농·귀촌인들에게 주거 문제는 중요하지만, 재정상의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속되지는 못했다. 인터뷰에서 J는 귀농·귀촌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주거를 꼽았고, 따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지자체에서 임대주택과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2016년, 2017·2018년, 2019년에 걸쳐 흥동 여성들의 이야기를 모아 사람책 형식으로 「그녀들의 흥동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흥동의 여성들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마련한 기획이었다. 이 책자에 실린 인물들은 흥성여성센터 초대 센터장, 40년 넘게 흥동미용실을 운영해 온 원장, 여성 마을 이장, ‘할머니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장터조합의 조합원, 30년 넘게 유기농업을 해온 농부, 1인 가구 여성 등으로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삶을 조명했다. 이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흥성여성센터 주관의 공개 행사 형식을 취해, 누구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청중과의 대화까지도 인터뷰에 실어 여러 층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2) 행복한 성 이야기 모임

2015년 봄, 마을 안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흔적 없이 사라지는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했고 가해자는 알려지면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공동체는 금이 가면 회복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숨은 사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가 회복되는데 마음을 모으지 못한 것이 아쉬움과 불편함으로 남았습니다. 그 일 이후, 좀 더 건강한 해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행성의 처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2018 우리 행성에 초대할게-나와 당신의 이야기:>

행복한 성 이야기 모임(이하 행성)은 2015년에 마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건강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후 성폭력 문제, 유아·청소년 성교육, 청소년·성소수자 인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들로 공부 주제를 넓혀갔다. 행성은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진행하며, 들고남이 자유롭다. 책모임뿐만 아니라 강연, 영화제, 간담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제일 힘을 받는 건 진짜 주변에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G, 30대 초반>

지금은 우선 같이 하는 친구들은 네 명에서 다섯 명. 그때 그런 같이 읽었던 책들, 돌봄에 관한 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돌봄을 많이 받았죠, 친구들한테. 꾸준히 책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에도 저한테도 새로웠고, 모임이 꾸려지는 방식 같은 것도. 골고루 모여서 고르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고 자기의 삶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런 게 저한테는 좋게 와닿아서. 나도 그런 것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 얘기를 하는 거에 그렇게 연습했다고 할까.

<B, 30대 후반>

행성에 참여하고 있는 G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느끼고, B는 모임원들과 돌봄에 대해 공부하며 돌봄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는 지금 행성에서 활동했을 때가 그 전보다 더 공동체라는 걸 느끼고, 흥동에 좀 깊숙이 활동하는 것 같아요. 거의 7~8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제대로 흥동 안에서 활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행성 같은 존재가 있으면 정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게 되지 않을까. 행성이 집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만. (...) 행성은 그냥 좀 버티게 하는, 나 자신이 건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I, 20대>

I는 스무 살에 풀무학교 전공부 진학을 위해 이주했으며, 졸업 후 홍성에서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 졸업 이후에 함께 졸업한 친구들과 1년 동안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이후에는 홍성 읍내에 직장을 구해 2년 동안 일을 했다. 본격적으로 행성 모임에 참여한 것은 일을 그만둔 2020년부터였고, 행성에서의 관계 맺음을 통해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고 있었다. 현재는 행성 활동의 연장선으로 성평등 강사 활동을 하고자 한다. 행성에서 활동하는 것을 통해 마을에서의 진로를 찾게 된 셈이다.

제일 만족스러웠던 거는, 그 전공부 학교에 내가 창업하고 다시 행성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가서 성교육 시간을 같이 가진 거예요. 그게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바라던 거를 결국에는 하게 됐던 거. 전공부라는 공간이 그런 공동체 생활하면서 젠더 감수성을 계속 깨우면서 지내지 않으면 엄청 상처 입고 그런 곳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나도 그 속에서 그랬고. 같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랑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나의 젠더 감수성을 키워서 그걸 같이 나누고. 여기가 잘 좀 회복되고 모두가 좀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전공부랑 다시 잘 연결될 수 있었던 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G, 30대 초반>

G의 경우 풀무학교 안에서 성폭력 피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행성 모임을 통해서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고, 학교 안에서 직접 성교육을 실시했다. G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학교와 마을 공동체에서도 젠더 감수성을 키워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3) 농촌청년여성캠프

농촌청년여성캠프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진행한 청년여성농민 간담회 직후 이러한 모임에 관심 있는 청년여성농민 혹은 농촌에 사는 청년 여성들을 모으는

작업을 위하여 기획되었고, 제1차 청년여성농민캠프가 2017년 3월 16일~17일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농촌에서 청년여성으로 겪는 일이 주로 공유되었다. 같은 해 8월에 2차, 12월에 3차 청년여성농민캠프가 진행되었으며, 여성·농민·청년을 주제로 한 콘텐츠 소개 글 연재 등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였다. 귀농 여성뿐만 아니라 귀촌 여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여성들도 본 캠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기 때문에 3차 캠프에서 명칭을 ‘농촌청년여성캠프’로 변경하며, 2018년 진행된 4차 캠프에서는 시골에 혼자 사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구 참여자 A는 네 차례의 농촌청년여성캠프 기획과 실행에 참여하였다. A는 농민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청년여성농민 간담회를 진행할 때 주변 친구들 등 참여자를 모으는 역할을 했다. 당시 A는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았지만, 농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는 여성들을 주축으로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1차, 2차 캠프에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겪는 불평등함을 이야기하고 울분을 토로하는 자리로 기획을 했다면, 3차와 4차는 참여자들이 공부하고 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어느 정도 성토가 끝나고 ‘그럼 이제 뭐할까?’ 라고 얘기할 때부터 간극이 생겼어요. 청년 여성 농민도 각자 정체성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청년 여성 농민캠프가 마무리될 즈음 스스로를 농민으로 여기는 세 사람이 모였어요.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 서로 우리 뭐라고 같이 해보자고 했죠. 그래서 마녀의 계절이 시작된 거였어요.

<A, 30대 초반>

캠프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귀농 여성들 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여성들까지 참여하다 보니, 구체적인 대안을 나누기보다는 여성 농민들의 경험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모임의 성격이 변형되어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과 농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여성들 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A가 생각하기에 캠프의 출발점은 청년여성농민을 위한 기획이었고, 진행을 하다 보니 캠프는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 형식임을 깨닫게 된다. 캠프의 정체성에 대하여 수차례 토론을 하였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현재 캠프는 진행되

지 않고 있고, A는 캠프에서 만난 청년여성농민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지은 농작물로 구성된 꾸러미 사업 ‘마녀의 계절’을 후속으로 진행 중에 있다.

#마녀지침서

- *자연에 기대어 농사를 짓습니다. 가장 위대한 마법은 자연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 수 있는 마음입니다.
- *사람 몸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맞추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꾸러미에 제철농산물을 담습니다.
- *먹는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사짓는 농부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과한 포장은 하지 않습니다.
- *잘나고, 못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제멋부리며 자란 농산물을 당당하게(합당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와 소비자가 평등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 ‘마녀(여성, 소농, 청년)’ 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작은 작당을 함께 모의하고 일으킵니다. 재미나고 신명나게!²⁹⁾

마녀의 계절은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여성이자 소농이자 청년인 ‘마녀’ 들이 건강한 제철 유기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보내는 프로젝트다. 농부와 소비자 관계의 평등,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포장, 생김새를 거르지 않는 농작물 등 추구하는 가치가 명확하다.

저는 기획자이자 논밭상점을 통해 판매 조력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진행하다보니 우리가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 다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지점도 재밌었어요. 당연히 청년 여성 농민들 사이에서도 다름이 있잖아요. 대농, 소농, 중농이 있을테고, 돈을 적게 벌고 싶은 사람, 돈을 열심히 벌고 싶은 사람, 기업형으로 가고 싶은 사람 등 다를 수 있잖아요. 마녀의 계절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같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어요.

<A, 30대 초반>

마녀의 계절도 캠프와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의 생각이 모두 같은 것은

29)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19.9.9, “제철농산물 꾸러미로 잃어버린 밥상의 계절을 찾으세요”,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593>

아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지만 햇수가 지나며 차이가 드러났다. A는 이러한 차이를 “재미” 있다고 표현한다. 청년여성농민이라는 정체성은 모두 같을 수 없고, 오히려 차이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갈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4) 란앤정 농장의 ‘비밀 언덕’

귀농하기 전에는 여성민우회 생협에서 매장 활동가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주 산지다 보니까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있는 생산자 분들하고 좀 친해졌고. 그리고 생협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고 싶었다는 기억을 되살리게 됐죠. 그래서 아, 시골에 나도 살 수 있겠다. 그리고는 집안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맞춰졌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시골에 생산자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게 저한테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시골에 활력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야무진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K, 50대>

농장 운영자 K는 홍성으로 이주하기 전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활동가였다. 귀농한 지 18년이 되었다. 처음엔 남편과 함께 왔지만 남편은 농촌 생활이 힘들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 직장을 구했다. 계속 따로 살 순 없었고, K는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 결국 남편도 2년 반 뒤에 홍성으로 돌아왔다. 초반에 농사는 텃밭 수준으로 시작했고, 귀농한 이듬해에 친구 2명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이후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 이어가지는 못했고, 남편과 농사를 짓다가 생계의 문제로 풀무학교 전공부에서 식당 가사 실습 교사, 지역아동센터 등의 일과 병행을 하게 된다.

‘란앤정’은 먼저 귀농한 K가 품앗이로 도우러 간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 이후 K가 집을 알아봐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근무도 하며 관계를 쌓아갔다. 그 당시에는 귀농한 사람들이 더욱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끈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란앤정’은 약 7년 정도 함께 농사를 짓는 와중에 일손이 필요하다고 느껴 농업기술센터에서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사업³⁰⁾에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C는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사업의 첫 인턴 참여자였다.

저희가 비빌 언덕을 하게 된 게 인턴 사업을 해서예요. 인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되고. 맨날 우리 둘이만 얘기하고, 우리 둘이는 잘 통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세월호가 터지고 이러면서 같이 집회 다니고 이런 것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우리끼리는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인턴을 받아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이 사람이 정착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랑 얘기를 해서 우리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이런 걸 느껴서 해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인턴을 만나보니까 우리는 서로 잘 소통하더라. 그리고 뭔가 서로 도움이 되더라. 그런 성공 경험이 있어서 비빌 언덕을 하게 된 거죠.

<K, 50대>

인턴 사업(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만나게 된 귀농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느껴 비빌 언덕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은 사회적 농업 육성 시범사업 수행의 제안을 받으면서부터였다.

제안 받을 때는 특수학급 아이들하고 농작업 하는 거, 사회적 농업이니까 아무래도 콘셉트를 그렇게 잡더라고요. 우리가 둘이서 마을 학교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는 여성 농업인을 잘 키운다, 그 콘셉트에 맞게 뭘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게 사회적 농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좀 있었죠. (저는) 여성 신규 여성 농업인, 사회적 약자다. 게다가 싱글들 너무너무 정착하기 어렵다.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1인 여성 가구는 배제되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 이보다 더한 약자가 어디 있느냐고 막 강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하게 된 거예요. 바빠서 우리 계속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그 해의 인턴이었던 △△라는 친구가 그런 기획 능력이 있어요. 추진력도 있고, 문서 작업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진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30) 홍성군에서 진행하였고, 청년 귀농인들이 일정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선배 농가에서 농사일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이다.

<K, 50대>

K는 비혼 귀농 여성을 위한 사업이 사회적 농업과 연결 지을 수 있음을 기획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비빌 언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란앤정’ 뿐만 아니라 인턴 사업을 통해 관계를 맺게 된 분의 서류 작업 등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K는 이 모든 과정이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한다.

프로그램이 이름이 비빌 언덕이잖아요. 저에게는 영농을 하기 전 정말 정말 비빌 수 있는 언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니까 심기부터 모종 키우기, 아주 심기, 중간에 풀 메기, 수확까지 다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과정의 인큐베이팅이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어느 부분은 좀 힘들지만, 어느 부분은 또 감사하게 잘 배우고 있고.

<F, 30대 후반>

상상을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또 자극이 되더라고요. 4년 전에 제가 했던 고민을 그분들은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땐 맞아, 나도 저런 생각했었지. 근데 행동이나 지속성이 떨어져서 못 해낸 것도 있어. 근데 저분들이랑 그럼 새로 해볼까 뭐 이런 약간 욕심도 호기심도 생기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C, 30대 후반>

연구 참여자 중 C와 F가 비빌 언덕 프로그램에 C는 선배 귀농인으로, F는 신규 귀농인으로 참여했다. 비빌 언덕은 매달 2박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렇기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농작물 키우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터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C는 선배 귀농인으로서 비빌 언덕 참여자들과 만나고 있는데, 이들과 새로운 무언가를 모색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비빌 언덕은 여성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 해부터는 란앤정 농장에서 비빌 언덕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K는 참여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꼰대’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C와 같은 후배들이 프로그램을 끌여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양적으로 많은 참여자들을 받기보다는 현재 정착해나가고 있

는 여성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K는 인터뷰 당시 이장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앞으로는 마을 일에 집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홍성에는 위 네 사례 외에도 다양한 단체/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연구 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한 사례들로 한정하였다.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행성, 농촌청년여성캠프, 란앤정 농장의 비빌 언덕은 모두 여성들 간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또한 지자체에 여성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하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도 하는 등 관계 맺기 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힘을 얻고, 대화를 나누며 농촌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이 이들 단체/모임의 역할이었다.

3. 농촌에서 페미니즘 실천 방식의 다양성

연구 참여자들은 농촌의 가부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다. 농촌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연구 참여자가 있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제 그 [농촌청년여성캠프] 토론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동네 사람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으면, 그 당시 저는 ‘강력하게 그 이야기를 부정하고 명확하게 알려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도시에서 살았고. 그런데 그때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린 거기서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라고 계속 이야기 했거든요. 그럼 나는 거기에서 그 집을 얻어서 계속 살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죠 쉽게 이야기 할 수... 너무 쉽게 이야기 했었네, 싫기도 하고.

<A, 30대 초반>

A가 초반에 홍성으로 이주하기 전 농촌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하고 실행했을 당시에는 성차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A는 그 당시에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

잘은 몰라도 처음에는 페미니즘을 외쳤던 친구가, 지금은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없이... 저도 찾아봤을 때 보통 배우거나 이런 데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농업에 일에 바쁘셔서. 혹은 어떤 계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도 연락을 해 봐서 얘기를 해봐야 되나 하는데, 한번 해보지는 않았어요.

<B, 30대 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같이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다. 초반에는 페미니스트로서 농촌에서 이뤄지는 부당함을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색을 찾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제가 [이주하기 전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농업 문화가 가부장제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나 어디 있지, 지금?’ , ‘여기는 어딜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농촌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여기서 여성주의 친구들을 찾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아서. 그냥 인간적인 삶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산 거죠. 그런 걸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약간 무색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E, 40대 초반>

E는 홍성에 내려오기 전, 여성단체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 농촌의 가부장성을 깊이 체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바꾸어내는 일에 힘겨움을 느끼고 있다. E는 현재 여성주의에 대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동료들 찾지 못한 상

황이며, 스스로 “무색의 삶” 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저의 일 플러스 나는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어제 나는 어땠나, 오늘의 나는 어땠나 이런 약간 생활 나눔처럼 그런 게. 서로 성장하고 모자란 걸 같이 지켜보고 이런 소통이 되는 관계들을 전 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집에 언니들이 그런 게 좀 되고. 초반에 청년 농부 같이 교육 받던 동기들이 대부분 남성이 많아가지고, 그분들하고 한 2, 3년 친했었는데, 대화가 딱 막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나고 나면 돌아오는 길에 더 외로워지고. 혹시 내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같이 일하거나, 학부 때 친구들을 가끔씩 만나면서 그 친구들하고 그런 가치관이나 사회에 대한 얘거나, 이런 얘기들이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가끔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채우고.

<C, 30대 후반>

C도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들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금 당장 홍성에서 이를 함께 해소할 만한 동료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외로움을 홍성 밖에서 원래 맺고 있던 관계로서 해소하고자 한다. C는 주민자치회, 조합 활동 등 기존 공동체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기존의 강고한 가부장적 문화에 큰 균열을 내기에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 강아지를 제가 산책하는데, 그때는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산책을 하는 거 자체를. 시골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산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TV에서도 산책 그런 게 나오고 하고. 근데 또 산책하는 사람 보니까, 마을 사람도 저를 보면서 익숙해진 거죠. 그냥 ‘어휴 유별나다 유별나’ 맨날 저한테 그러셨는데. 근데 어느 날 철창에 맨날 갇혀 있던 애가 나와서 산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처음엔 유별나고 이상해 보였지만,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모습이 되는 거. 그런 시간도 서로 필요한 것 같고.

<G, 30대 초반>

G와 같이 대안적 삶의 실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마을이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는 지점도 짚어 보고자 한다. G에 따르면 이전에는 하다못해 강아지 산책시키는 것도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는데, 이후 미디어에서의 변

화도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마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기농 같은 경우도 50여 명 생산자 중에 부부 생산자들도 있는데, 부부 생산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편 이름으로 조합원 가입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 행사 같은 거 하면 경품이나 행운권 추첨 이런 거는 조합원 이름을 그 명단을 보고 넣기 때문에, 남편 분 이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생은, 와서 뭐 부침개 하고 서빙하고 이런 건 다 여성들이 하고 있어. 전날부터 식재료 준비하거든요. (...) 여성 분의 이름은 정말 오래된 거나 대표의 부인 뭐 이런 사람 아니면, 그 누구 형님의 그 조합원 그분의 사모님 있잖아. 저는 ‘사모님이요?’ 라고 되묻죠. 그분 이름을 알려달라고, 회의록에 쓰게. 근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몇 년 동안 와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게 되는 게 누구 추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 뭔가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을 개별로 볼 수 있는 거. 그분도 농사를 짓는 파트너인데, 보조가 아니라. 아니면 그 분이 발작업이나 포장이나 이렇게 손으로 하는, 손 근육 움직이는 것들은 훨씬 더 여성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몇 명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여성 조합원들하고 얘기는 하지만 이슈화가 되지 않아요. 누가 총대를 매거나 공론화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 의식만 몇 년 안됐죠.

<C, 30대 후반>

C는 자신이 속한 유기농 조합 내에서 여성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해 나간다면 조합의 분위기가 바뀌어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농촌에서 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는 것의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런 논의들이 경합하는 장이 농촌 공간이고, 이에 대한 한 가지의 해답만을 제시할 수는 없다. 일상의 부당함과 불편함을 바꾸어가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모여 농촌의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충남 홍성으로 귀농한 비혼여성들이 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귀농 이후 농촌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다루었다. 또한 귀농 비혼여성들은 농촌의 가부장 문화에 어떻게 적응, 대응하고 있으며 충남 홍성의 4개의 여성 공동체 사례를 통해 비혼여성들이 농사짓는 삶을 지속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상가족을 이루지 않은 채로 귀농을 선택했다. 이들이 충남 홍성으로 귀농을 하게 된 계기는 사회 운동 경험과 맞닿아 있었다. 충남 홍성의 대안적 공동체에 대한 실험과 오랜 유기농업의 경험들은 경쟁과 소비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연, 사람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하였다.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지만, 직접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기존의 관계들과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도시에서의 삶과는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되는 것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가족’을 반드시 이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소비 중심적 삶에서 생산 중심의 삶으로의 이동은 적극적인 삶의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농촌은 여성들이 농사일, 가사노동, 마을일 등 수많은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비가시화되어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이자 집을 빌려 살 수밖에 없는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성원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렇듯 농촌의 가부장성은 귀농 비혼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대안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이지만 성차별과 성폭력의 문제로 여성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여성들은 흠에서 땀 흘리는 노동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적게 소비하고 환경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는 소농의 형태를 지향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자급적 삶’을 실천하였다.

비혼여성들은 자신만의 방식대로 농촌 가부장제에 저항하며 균열을 내고 있기도 하였다. 주변에서의 결혼 압박에 대응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여성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였다. 또한 충

남 홍성에서 여성들의 안전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 행복한성 이야기모임, 농촌청년여성캠프, 란엔정 농장의 비빌언덕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삶의 기획들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옆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농촌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농사짓는 삶, 농촌에서 겪는 경험들을 드러내고 농촌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성들의 공동체를 들여다봄으로써 ‘자급적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좋은 삶’의 모델을 농촌으로까지 확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인터뷰 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여 관찰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충남 홍성의 대안적 공동체와 여성들의 공동체 간의 관계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였다. 또한 충남 홍성에서 살아가는 8인의 이야기를 귀농 비혼여성의 삶으로 일반화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귀농 비혼여성을 비롯하여 그동안 농촌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사회적 주체들에 관심을 둔 더욱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단행본

- 이지영. 2019. 『페미니즘 고전을 찾아서』. 「자연 착취와 여성 착취는 동일선상에 있다」. pp.175-194. 에디투스.
- 김현미. 2021.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 반비 출판.
- 김현미, 강미연, 권수현, 김고연주, 박성일, 정승화. 2010. 『친밀한 적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 더 케어 컬렉티브. 2021. 『돌봄 선언』. 니케북스.
- 로즈메리 퍼트넘 통·티나 페르난디스 보츠. 2019.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 「에코페미니즘」. pp.355-400. 학이시습.
- 마리아 미스. 2014.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 마리아 미스·반다나 시바. 2020. 『에코페미니즘』. 창비.
- 마리아 미스·베로니카 벤홀트-툼젠. 2013. 『자급의 삶은 가능한가-힐러리에게 암소를』. 동연.
- 손희정. 2017.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 여성환경연대 기획·강남순, 이상화 외. 2016.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 도서출판 시금치.
- 여성환경연대. 2019.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주)가나문화콘텐츠.
- 오미란. 2020. 『서른 전여농, 세상의 힘, 변화의 중심』. 한국농정.

논문

- 강미선·김성희·정인혜. 2020. "내 뜻대로 삶 쓰기: 20대 여성의 4B 가치관 형성 과정 연구." 여성학논집, 37(1), pp.153-194 Jun, 2020
- 김명숙. 2013. “생협운동에 대한 생태여성주의적 이해 : 아이쿱울산시민생협 사례연구” .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김문정. 2015. “여성 정체성의 정치에서 아고니즘 정치로: 대구 안심마을공동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31(4): 295-330.
- 김소라. 2007. “고학력 비혼여성의 독신문화에 관한 연구-새로운 생애단계의 사회적 구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 김효정. 2013. “비혼 여성 활동가들의 공동체 농사를 통해 본 도시농업의 여성주의적 실천 가능성.” 한국여성학, 29(4), 113-154.
-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 155-198.
- 권승문. 2011. "농촌지역의 발전 사례에 관한 연구 : 충남 홍성군 홍동면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논문.
- 문순홍. 1995. “에코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 여성과 사회. 1995-06 (6):316-327.
- 박선미. 2021. “현대 농촌 공동체의 주도적 활동가 유형과 활성화의 동력.” 실천민속학 연구, 37(0), , pp.81-120 Feb, 2021.
- 박신규·정은정. 2010. “여성농민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과 여성농민운동의 발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2010-01 20(1): 89-129.
- 박주희. 2009. “주민주도형 농촌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전라남도 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농촌사회,19(2),207-242.
- 백영경. 2017. “커먼즈와 복지: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시론.” ECO 2017년 제21권 1호: 111 - 143.
- 백은미. 2012. “생협운동 경험을 통한 여성들의 살림 가치에 대한 의미 고찰 - icoop생협 부산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 . 여성학연구, 22(2), 71-107.
- 성지혜. 2013. “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청도군 귀농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 농촌사회 제23집 제2호. 한국농촌사회학회.
- 신유정. 2022. ““치유” 하는 소비자와 무명이 된 농민 : 남원지역 A 생협 사례를 통해 살펴본 협동조합 내 농(農)의 미가시화·소외의 맥락” . 농촌사회,32(1),109-155.
- 이상화. 2011. “여성과 환경에 대한 여성주의 지식생산에 있어 서구 에코페미

- 니즘의 적용가능성” . 한국여성철학, 11/30/2011, Vol. 16, p. 109-140.
- 이영배. 2021. “공동체성의 변환과 유동하는 경계들 - 충남 홍성군 홍동면과 장곡면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6, 209-252.
- 이옥희. 2005. “농촌여성의 생산 및 재생산 노동에 대한 자기인식과 역할의 질적 접근: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영남학 제7호.
- 이현희. 2004. “생협운동의 여성주의 정치학으로서의 가능성” . 여성학논집, 제 21집제2호, 111-150.
- 전희경. 2013. “삶이 경제의 ‘부수 효과’ 가 되지 않는 세계는 가능한가” . 한국여성학,29(4),237-245.
- 전희경. 2014.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성을 질문하다-서울시 마포은평 지역 비혼/퀴어 페미니스트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14(1),75-112.
- 정다래. 2009. “비혼 귀농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 대안적 삶에 대한 가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숙정. 2021. “ ‘여성X농민’ 의 교차성: 여성농민의 불평등 경험과 정체성.” 농촌사회. 31(1), 93-153.
- 조옥라. 1996. “여성 농민의 성 정체성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인류학 29-2, 97~121.
- 지은숙. 2022. “도시 거주 비혼여성의 주거 실천과 대안적 거주 생애사의 구축” .민주주의와 인권,22(1),283-326.
- 진명숙·박성정. 2012. “귀농·귀촌여성의 농촌생활 경험 분석: 진안지역 사례” . 여성연구 vol 83 No.2 pp.275-297.
- 진명숙. 2020. “친밀과 돌봄의 정치경제학: 충남 홍동 지역 여성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논문·한국문화인류학 53 - 2: 51~115(2020. 7) 한국문화인류학회.
- 진명숙. 2021. “지역공동체의 존재론적 공동성: 충남 홍동의 풀무공동체를 사례로.” 한국문화인류학 54-2:3~51. 한국문화인류학회.
- 진양명숙. 2014. “젠더 관점에서 본 귀농·귀촌 여성의 정착 과정과 그 특성” . 농촌경제, 37(3) : 79-100.
- 최규혜. 2021. “지리산 산내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적 확산과정에 대한 연구” .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승호. 2009.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의 발전 방안 모색- 충남 홍성군 홍동 풀무마을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9(1), 237-268.

최은주. 2012. “비혼여성 농촌이주와 자기충족의 윤리” . 여/성이론,(26),46-62.

허미영. 2008. “생협의 대안적 소비문화의 성격과 그 함의” . 농촌사회,18(2), 7-36.

기타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집」

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6. 「그녀들의 홍동 이야기: 홍동 허스토리」 .

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8. 「2017·2018 그녀들의 홍동 이야기: 홍동 허스토리」 .

홍성여성농업인센터. 2019. 「그녀들의 홍동 이야기: 홍동 허스토리」 .

행복한성이야기모임, 햇살배움터마을교육연구소. 2018. 「우리 행성에 초대할게 -나와 당신의 이야기」

웹사이트

꿈이자라는뜰 홈페이지 <https://www.greencarefarm.org/198?category=3236>
16

마을학회 일소공도 카페 <https://cafe.naver.com/oolocalsociety?fbclid=IwAR2f5Lg5cPoN2BIUZt8pbJ8p06hqBeT0x2EA7kaAj1lFn7Agw6TRt3mMnEY>

마을활력소 홈페이지 http://hongseongcb.net/2015/sub_1_2.html

우프코리아 홈페이지 <http://woofkorea.org/>

젊은협업농장 홈페이지 <https://collabo-farm.com/about-young-collabo-farm/>

한국농어민신문. 2019.9.9. “제철농산물 꾸러미로 잃어버린 밥상의 계절을 찾으세요”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593>

홍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hongseong.go.kr/prog/popule/kor/sub04_01

05/list.do 홍성소개_인구/세대

홍성군청 홈페이지. https://www.hongseong.go.kr/kor/sub04_0104.do 홍성소개_행정구역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카페 <https://cafe.daum.net/yeonongcenter/Dctp/1>

행복농장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happyhada.com/오누이마을-이야기/>

【Abstract】

Practicing Feminisms in the Rural A Case Study of Non-married Newcomer Peasants in Hongseong, the Province of Chungn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model of 'good life' by exploring meanings of farming and pursuing community life, through studying the cases of non-married women newcomer peasants. In the midst of neoliberalism that promotes reckle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members of society are living in constant competition in the name of growth. Pressure on growth has also led to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natural destruction.

Until now, in Korea, discussions on eco-feminism and non-marital women's communit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in urban space based. In addition, research on rural women, including returnees, tends to be limited to the roles as women in the family. Therefore, this paper illuminates rural space and agriculture through the 'subsistence perspective' of eco-feminism which reveals that domination of nature and suppression of women are connected to each other, and views non-marital women as performers of 'subsistence perspective'.

Janggok-myeon and Hongdong-myeon, Hongseong, Chungcheongnam-do, where experiments on alternative communities are actively conducted along with organic farming, are set as research sites, and the life of unmarried returnees is examined in detail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By analyzing a series of lives from the time when non-married women who returned to Hongseong, Chungcheongnam-do decided to migrate till settle down, drew conclusions based on three major research questions.

First, it was interpreted non-married women's choice returning to farming lived in rural areas as an active alternative practice without the form of 'normal family' as the default. Second, unmarried women living in rural

spaces where women's labor is invisible are even excluded from the community though, they are changing their daily lives to be nature-friendly in order to escape from neoliberal life. Third, it was interpreted that the feminist practice of non-married women in rural areas is active. Non-married women returning to farming were adapting and responding to the rural patriarchal culture in their own way, and were gaining momentum to continue their farming lives through the female community in the village.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model of 'good life' in rural by looking into the community of women which make non-marital women's returning to farming life possible.